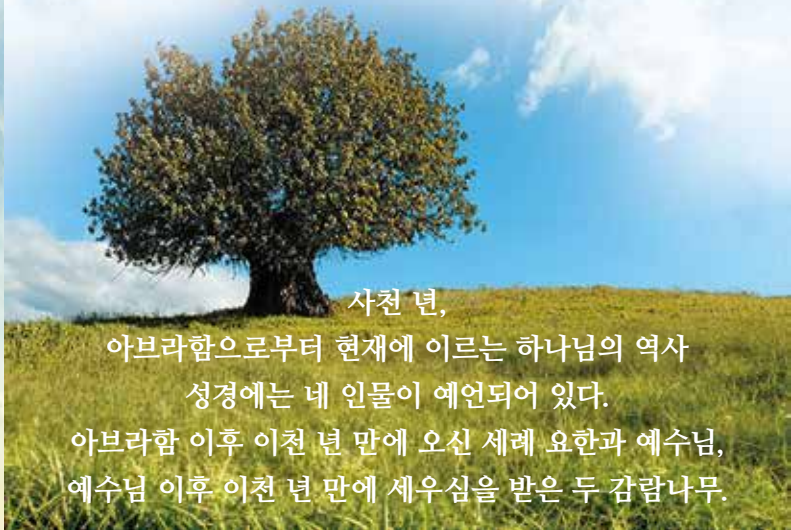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15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6월 2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92-2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15



저자 (2002년 당시)



상천에덴골프연습장. 교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스포츠 시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여가선용 기회를 주고 있다.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도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상천에덴골프연습장. 페어웨이에서 바라본 골프연습장 모습

Prologue

“세계에 고하노라”

- 머리말을 대신하여 -

인간의 생애는 성경 말씀 그대로 안개와 같아서, 누구나 시간의 등에 업혀 한동안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 횡포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 중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과히 걱정하지 말라신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이 길은 속사람의 눈이 밝을수록 잘 보인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느 경전들과는 달리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단을 의식하여 상징과 비유로 점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짐짓 가려 놓은 대목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고금의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 왔으나, 풀지 못하고 덮어 둔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적대 세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마귀를 천사가 타락한 악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적지 않은 지장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에서 비롯되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보다 근원적인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로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침투하였으며, 이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자 경륜이다. 이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위부대를 필요로 하신다.(계14:1 참조) 6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는 요컨대 이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것이다. 이 군병들은 우선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기꺼이 바친 순교자로 편성되어 있다.(계20:4) 이른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이들이다.

오늘날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온통 빼앗아가기 일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성경에서 모든 신령한 요소를 제거하려고 한다. 오늘날 이 어둠의 장벽을 뚫고 등장한 것이 성경에 예언된 이긴자요, 감람나무이며,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성

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은 언약대로 그에게 권세를 맡겨 역사하고 계신다.(계11: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을 주의 피권세로 단시일에 충당하는 고된 사역을 실제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가 마무리될 때 비로소 이 땅의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여 만유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상세한 자초지종은 이미 출간된 15권의 설교집에 소상히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복음이며, 기독교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끝으로 이 설교집의 교정을 보아주신 하천석 선교원장님과 김윤성 목사님, 장승렬 장로님,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며, 테이프를 녹취해 준 임정순 양에 대하여도 고맙게 생각한다.

2002년 9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세계에 고하노라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09

Part 01.

섭리 안에 거하면

- 01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20
- 02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28
- 03 영적 방주를 지으면서 36
- 04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46
- 05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55
- 06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역사 66
- 07 보혈의 귀중성에 대하여 77

Part 02.

면류관과 바꿀 때까지

- 08 어둠을 물리치라 88
- 09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101
- 10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 107
- 11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121
- 12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134
- 13 케네디 우주센터를 돌아보고 142

Part 03.

진리의 감주를 입고

- 14 감람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 150
- 15 피의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158
- 16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1) 165
- 17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2) 175
- 18 교만을 경계하라 184
- 19 경각심을 잃지 말라(1) 189
- 20 경각심을 잃지 말라(2) 196

Part 04.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 21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 216
- 22 우리는 왜 섭리 안에 거해야 하는가? 222
- 23 알곡성전의 소명 238
- 24 우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246
- 25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257
- 26 성경에 나오는 '발등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263
- 27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하여 272

Part 01.

섭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 2.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 3. 영적 방
주를 지으면서 · 4.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 5.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 6.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역사 · 7. 보혈의 귀중성에 대하여

Chapter 01.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되는 줄만 알았더라면, 신의 움직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영의 전쟁에 대비하는 역사를 만나다 보니, 다는 모르지만 신의 움직임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교류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신앙 운동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일반교회와는 달리,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즉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사이의 역학 관계를 알게 됨으로써, 신앙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모든 소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

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주님을 대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자신에게 없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다.”(마7:7) 그리고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마7:10) 하고 다분히 육적으로 위안이 되고, 또한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자식이나 가정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마10:37)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임의로 띠를 띠고 다니지만, 언젠가는 원치 않는 띠를 띠게 될 것이다.”(요21: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계2:10)하고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다분히 아리송한 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위주로 전도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수는 ‘이런 것이다.’, ‘아니다. 저런 것이다.’ 하고 견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3:16)는 말씀에 치중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성취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신앙 안에 인도받아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도, 결국 하나님과 주님에게 이득을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선 역사에 관해, “나는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아낌없이 주었건만, 그들은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뭔가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역사는 대대손손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되든 안 되든, 당대에 결정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태양계는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억 광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애깁니다.

오늘날 태양계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독특한 천체 때문에 지구에는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태양이 조금만 멀면, 우리는 동태가 되어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쏠덩이가 되어 타 죽습니다. 여러 천체 중에도 이 지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딱 알맞은 1억 4천 95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선 정말 코딱지에 불과한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이 벌레 같은 인간들이 뭐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마귀를 완전히 꺾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계획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로 움직이십니까? 마귀를 상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감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때문에 하십니까? 마귀를 상대로 하시는 데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시초부터가 마귀를 상대로 하기 위해 아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내막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될 때는 하나님께 소중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존재가 별 볼 일 없게 될 땐 하나님께 귀하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이러니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인간을 가까이하시다가, 필요가 없으면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해 오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에게 지배받던 인물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만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이 하나님뿐이냐? 그게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딴 신의 지배를 받는다면 딴 신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하고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야 이단이다, 삼단이다, 하고 욱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알다시피, 성경에 감람나무가 둘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감람나무 역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때가 되기까지는 입을 봉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에 연신 앞선 역사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알려 주신 겁니다. 보여 달라 해서 보여주시고,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찰하고 생수 축복하는 거, 주님의 지시를 받고 오늘날까지 일해 온 겁니다. 애들 장난 같은 얘깁니다. 셋방살이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믿어줄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등장할 때 화려했습니까? 갈릴리 앞

바다에서 어부, 하나둘 택해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 “따르라.” 하여 제자를 삼고,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착시키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번성할 내 민족들을 정착시키겠다.” (창15:13-16 참조) 이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열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대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이 닿는 곳은 거룩해진다.” (출3:5)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청량리 제단을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 단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이 생생하여 어제 일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찰할 때 여러분의 눈에 제 손길을 대면 여러분이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여 지은 성전에 앉아 계십니

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애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납이 볼 때 그냥 집 짓는 줄 압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 겁니다. 지금 부속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큰일은 축구장 공사입니다. 여러분은 언뜻 들을 때 축구장, 축구장 하나까 축구장을 짓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축구장은 육적인 얘기고, 내용적으로 주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 지어 놓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박 장로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망했는데, 너라고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역사에 텐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우리 역사가 성공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Chapter 02.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이제 며칠 지나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2000년이 시작됐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가졌던 게 었그제 같은데, 또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세월이 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인간은 25살부터 노쇠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세상에 나와 25년간은 계속 성장하다가 모든 세포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되고 육신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더욱 흐르면 육의 장막을 벗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숙명이고,

우리 인간이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저주입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창3:19) 이 말씀대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와서 그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간단한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존재는 우리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태어나서, 한세상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남을 장사지냈는데, 얼마 후에는 남이 자기를 장사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하고 한 번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죽음을 자기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한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일반인들이 죽는 것은 표가 안 나지만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경제인, 혹은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아, 그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가고, 수없이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주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떠나라.” 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마 7:23)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함께 믿는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어떤 사람은 왕위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처럼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가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지키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평안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다소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심신이 단련되어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선만 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빛과 어둠이 겨루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묻히기도 하고, 빛에 거하기도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빛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라도 빛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고도의 전략적인 지혜와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투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

니다. 그들이 죽을 무렵에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인 정주영 씨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돌아보니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봤으면,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아 봤으면, 하는 희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욕구를 이루고 보면 결국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이 죽음을 맞을 때에는 유난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금세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쳐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속13:9)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주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이 역사를 맡을 무렵에, 주님께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주시면서 “보라.” 이겁니다. 나는 정말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도사로 나가서 개척할 때에도 벌레가 득실거리는 닭장에 흙벽을 쌓고,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람나무를 전했던 겁니다.

또 “보라.” 하시고 아스팔트가 깔린 고속도로를 펼쳐 보이시면서,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해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천 전도관에서 교역자 생활을 그만두고 사회로 나왔는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이영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도 그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주의 종을 바라볼 때 남달리 감회가 깊을 겁니다. 내가 바빠서 식사도 한 번 같이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그래도 나는 이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 머릿속에 날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건 인간의 두뇌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내일모레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29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 긴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육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좋은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희들이 충성한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걸 찾아라.”(계 2:4) 이겁니다. 이 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서 은혜 받고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해서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던 때에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잡혔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불안해합니다.

앞선 역사 안에서 죽은 사람은 교인들이 생수로 피어가게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되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기성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죽었을 때 시체가 피어납니까? 안 납니다. 훌륭한 목회자나 부흥사가 와서 기도하면 위로는 될지 몰라도, 시체는 뺨뺨이 굳은 채 변동이 없습니다. 목사나 부흥사가 죽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으면 저 꼴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후회하면서도 우리 역사엔 안 옵니다. 심령이 굳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난잡한 여자 관계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죽어 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라. 저렇게 죽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마11:11)고 하여 천국에서 그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자가 주님과 불화로 주님의 질책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교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몸을 담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나름의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가엽게 여깁니다. 그들도 나한테 안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손길을 받고도 판단을 잘못하여 주의 종과 직접 부딪쳐서 결국은 떨어졌던 겁니다. 그 세계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되었나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앞선 하나님의 종이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를 인도하던 장면, 내가 그분에게서 안찰을 받던 장면, 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안찰을 시작하던 장면, 또 옥중 생활을 하던 장면 등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 이루어 가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갈 장면, 앞으로 펼쳐질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체 신과 인간 사이가 왜 이래야 하는가? 또한 인간이라는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고 골똥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주탐사선이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16년 동안 날아서 목성에 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에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코딱지만 한 것이고, 우주 안에서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요 앞의 길을 가다가도 “빨리 길을 만들라!” 하고 재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짓기 전에, 길부터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길을 낸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일하다

가 하나님 앞에 가는 구나.’

또 성전 앞에 운동하러 나가서, 이상 중에 봤던 장면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 저를 따르는 백성들을 받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때 신호로 성령이 옵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기를 할 겁니까, 믿어 주기를 할 겁니까? 혼자서 하나님과 교류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갑갑한 일입니다.

내가 도포 입고, 수염 기르고, 주발봉에 가서 “에헴!” 하고 외칠 수도 없는 거고, 나도 먹어야 하고, 뛰어야 하고, 피로도 느낍니다. 저는 가끔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생각합니다.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겠구나!’ 그분의 육신만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영은 판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고후4:16) 그러니까 우리 성회장 이하 모든 양떼들은, 육신은 늙어가도 마음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선 마음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골칫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쉬울 게 없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아쉬워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hapter 03.

영적 방주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는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전에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질병이나 노쇠로 인하여 먼저 육의 장막을 벗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곧 기독교입니다.

신앙은 곧바로 깊은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험산 준령을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저 믿고 따르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여 처음부터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겨 나가고, 또 나쁜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줄여

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지, 금방 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전진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성에서 헤어가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마땅치 않은 일은 슬기롭게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믿으면 뭐하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범죄를 하고 보니까 결국 나만 손해구나!’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올 때는 ‘아, 내가 전에 이런 일을 겪었던니 이런 후유증이 오더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고쳐 나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뒤끝이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다스려 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하는데, 도중에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져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기를 되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금이 갑니다. 우리는 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다스려 나가야지, 욕망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람나무 시대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주의 지시대로 따라가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때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대로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한 배를 탄 신앙인들은 합심하여 항해할 때 목적지에 무난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이어질 때,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종에게 큰 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때 주의 종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상히 알려 줘야 합니다. 결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들의 발자취를 거의 다 압니다. 육적으로는 그분들보다 나은 것이 없겠지만, 사명 자체가 크다 보니, 역대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영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일반 신앙인들에게는 건방진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호의호식을 했다고 해도 여름에 찬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있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 봤자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티코라도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마차를 굴렸을 뿐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지 성인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상대할 때하고, 그것을 이루는 주의 종이 움직일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시한 이긴자의 역사는 이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따르는 숫자가 많고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점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힘에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석 달 동안 쫓겨 다닐래, 백성이 7년 동안 시달리게 할래?”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수만 명이나 죽어 나갔습니다.(삼하 24:13-16) 자기가 범죄하고 왜 벌을 백성들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어떤 형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했었습니다. “나는 벌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피하는 것과 용서를 비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어여뻐 보셨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주의 종으로 일하면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시

작할 때는 심령이 어렸습니다. 사명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깊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명심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앞선 역사에 물 붓듯 주었으나, 저들은 나에게 준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저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받아 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께 뭘 드려야 합니까? 정성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건 정성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싫든, 내 정성을 다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을 기울일 때, “너희가나한테 가져온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의 가족들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서른여섯 살 때 일곱 남매를 두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서른여섯이면 새파랗게 젊은 나입니다. 그 나이에 일곱 남매를 뒷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려니까 그런 어려운 처지를 겪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인천에 있는 큰 이모를 통해 인천 시의원원으로 계시던 분의 주선으로 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호관이 하고 영자, 경자를 고아원에 보냈는데, 그 후에 제가 대일목재회사를 거쳐, 자유당 중앙당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4.19시위를 맞아 그곳을 나와 동생들이 고아원에 잘 있나

해서 혼자 찾아갔습니다.

영자와 경자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호관은 다른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잘 있구나.’ 하고 집을 향해 걸어오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의지할 친척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먹여 주신다면 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한평생을 저는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한참을 울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혼자 지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른두 살에 에덴성회를 시작할 무렵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결혼을 해라.” 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혼자 지내다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9년 전에도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서너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무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에 지장이 와도 네가 고집을 세우겠느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제가 고집을 못 부리고, 누구를 데려오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집사람하고 부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 드립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 1학년을 다니는 어린 집사람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주의 종을 옆에서 보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해 주고, “너는 이걸 알고 들어와야 한다. 아기는 낳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걸 생각해서 원치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교인들 앞에서 “내 청춘을 걸고 일하겠으니 따르십시오.” 하고 말했던 내가, 결혼하면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터이므로 자존심이 상하여 결혼을 단념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잠이 들었을 때 주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지만, 걱정하지 마라.”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자진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못마땅한 일로 야단을 칠까 하다가도 ‘주께서 지시하신 상대인데.’ 하고 참습니다. 또 아내에게 최대한 잘해 주려고 애씁니다.

올해도(2000년 당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이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는 축구장 때문에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육신은 피

곶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한테 큰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은 살다 죽게 마련인데, 그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시는 용돈을 그대로 저축하여 알뜰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태면서 일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돈을 보이려고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가 가는 길에서 자기와 싸워야 하고, 양떼들은 양떼들이 가는 길에서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나는 성회장님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왜 저렸습니까, 하고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 성회장이면 인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신앙도 나보다 연조가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구태여 이래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대문 을구 전도관에 다닐 때, 현재 우리 하천석 선교원장님을 관장님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영수야.” 하면 “예.”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선교원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만을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옛날 내가 섬겼던 분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최병식 장로님은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이고, 송 실장도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김해성 성회장이나 박상석 성회장도 연상이지만, 내가 반말을 합니다. 그 쪽에서 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선교원장님에게는 제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정철 장로님은 저보다 나이가 위지만 “신정철.” 이렇게 부르며 농담을 해도, “하천석.”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배로 섬겼기 때문에 예의를 지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앞선 역사에 몸담고 충성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경비를 보는 분이 박병혁 집사인데, 덕소 신앙촌에서 장로님 댁의 경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신화봉 집사는 장로님을 가까이 모시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환택 장로님은 제가 섬기던 간사님입니다. 성가대를 지휘하는 이현영이나 백천웅 같은 분은 제가 높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데었으면 됐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람나무 역사가 나뉠대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를 돌아보면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 따라오면서 고생한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상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칭찬 받는 종으로 이 시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당한 괴로움

을 은혜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 방주를 훌륭히 완성하여, 이 시대를 멋있게 장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역사를 훌륭히 이룰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하고, 앞선 역사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내기 위해서도, 우리 역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Chapter 04.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은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펼쳐질 장면들로 연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지내는 방법이나 성전의 규격, 형태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 받아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요컨대 장차 영의 세계에서 펼쳐질 실체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일들을 결코 우연히 지나간 과거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의 세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일으키신 일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규모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막으로 된 한 10여 평 남짓한 지극히 작은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므로 간단하게 천막을 치고 당신의 백성들이 경배를 드리게 하였던 겁니다.

‘성소’니 ‘지성소’니 하는 말들은 당시에 지상에서 쓰였지만, 또한 영원한 그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고, 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는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밖 마당이 있다고 나옵니다.(계11:2)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신들이 싸움하는 광경까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계16: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 안 되는 규격을 말씀하였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청사진으로 본다면,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비슷한 광경이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 제도에서 피를 강조하여, 우리 육체의 죄를 짐승의 피로 속죄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인 희생을 강요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의 제사에도 동물이 제물로 쓰

이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민속신앙에서는 한 고을을 주관하는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심청전을 통해서 그 예를 보게 됩니다. 바다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날 때 그 바다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물로 처녀를 바치면 어부들이 풍랑을 당하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마다 그 신에게 제물로서 처녀를 바쳤던 겁니다. 어부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처녀를 사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만한 이득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개한 지역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민족 가운데는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산 제물이 된 경우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이삭은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일반교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죽음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얼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26:39) 하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당사자인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희생을 원치 않으셨느냐? 아닙니다. 그분 역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강요하였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0:39)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스데반은 모세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죄인이라 하여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내 주께서 여호와와의 우편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신다.” (행7:56) 이러한 모습을 사울이 옆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일그러지고 깨지고 터지면서도 천사처럼 화사하게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와의 우편에서 돌에 맞아 죽어 가는 스테반을 지켜보셨다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셨다는 얘기도 됩니다. 죽지 않게 도와주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유도했던 겁니다. 왜? 스테반이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이 한 사람 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일그러지고 공포를 느꼈다면 그 얼굴이 화사한 천사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공포에 질리는 얼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다보셨기 때문에, 죽어 가는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처럼 환해졌습니다. 주님이 스테반을 천사의 모습으로 죽게끔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요구했고, 신약 시대에도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늙으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것”(요21:19)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베드로의 순교에 관여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에게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고, 우리 주님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희생의 제물(순교)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주님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눅17:33) 하나님의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레 17:11)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즉 선지자들이 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끝에 가서는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아야 하는가?

로마법이 사형수를 교수형에 처했다면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었을 때 주님은 교수형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시대였으므로 못 박혔고, 스테반은 모세 율법

에 의해 돌팔매를 맞아 죽은 겁니다. 법에 따라 죽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가 제사입니다. 제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6.25동란 때 목사님들이 빨갱이들한테 잡혀가서 기꺼이 총살형을 받았다면 그것 역시 순교입니다. 지금도 합정동 한강변에 가면, 옛날에 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인 장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겨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오늘날까지 어느 나라의 누가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자기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까지 신끼리는 서로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여전히 변함없이 겨루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죽음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바뀐 게 언제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이 감람나무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말로는 하기는 쉬워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풀이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을 120문도가 다 같이 받았던 겁니다.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도록 유도했습니다.(요21:18)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선 장면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신도들이 사자 앞에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죽음을 원하신 겁니다.

200년 전에 프랑스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대단히 성스럽게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지가 벌써 2천 년이 지났는데, 천구백 년이 지난 시대나 혹은 천 년이 지난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죽어 갔습니다. 아니 주께서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을 최고로 아시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보람이 있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혜택을 받은 겁니까? 받지 못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목 베임을 당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신 후에도 수제자까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면,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혜택이 베드로에게 돌아간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을 주께서 저에게 해주신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한두 명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설명한다고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 박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에덴성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순교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일찍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혜택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제사의 혜택을 받았으면 기독교인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순교자들처럼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순교를 당한 것은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계속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 영혼을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처참한 죽음을 보지 않아도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느니라.”(요6:54) 순교를 해야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갔던 것을, 순교를 하지 않고도 들어가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생수의 성령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받았다면 구태여 순교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없어도, 죽은 후 생수에 의해 부드러운 얼굴로 변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보혈의 혜택입니까? 주의 보혈의 혜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Chapter 05.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



누차 말하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가는 가사도 좋고 곡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세파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인데, 이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다음 영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괜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영의 세계가 사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신과 신의 함수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신과 신은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감히 인간인 우리가 논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장면의 하나입니다. 말씀이 소중한 고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그’는 악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싸우는 광경을 다니엘이 본 장면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괴롭게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극

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또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면 나라, 또 한 사회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때와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돼서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번개코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번개는 준수가 아니라 불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배받는데,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권세를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계13:1) 요한 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13:2-4)

다니엘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단7:25) 지극히 높으신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권세는 용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계13:2)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큰 권세를 받은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단7:17) 그런데 이 큰 네 짐승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나타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까? 다니엘서 7장 25 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 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같다면, 마흔두 달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릅니까?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마흔두 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계11:2)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마흔두 달입니다.

그럼 그다음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계11:3) 하고 또 기록이 나옵니다. 1,260일은 달수로 마흔두 달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계11:4)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사흘 반, 마흔두 달, 1,260일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 측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측의 날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때가 정해진 겁니다. 이것을 날짜를 변경한다든가, 어느 때를 변경한다고 할 때에는 유리해서 그러겠습니까? 불리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해진 날을 지키지 않는다, 이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귀의 이런 움직임과 직결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걸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겁

니다.

나는 지금 성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감람 나무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감람나무와 전쟁을 하여 이긴다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계11:7) 두 감람나무는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마귀와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그 윤곽이나마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용이 최고의 권세를 주는 자를 성서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 선다는 것은 주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권세입니까? 하나님 측을 대표하는 권세입니다. 그럼 용의 부하는 누구입니까? 짐승입니다. 주님의 부하는 누구입니까? 감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장차 감람나무와 크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계11:7)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했습니다.(계11:3-4) 성경 66권 가운데 1,260일의 날짜를 정해 놓고 등장하는 건 감람나무밖에 없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저는 지금 성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말한 내용을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천사가 인봉하라고 했습니다.(단12:7-9) 요즘 저는 계속 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둠과 빛의 움직임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자하고 직결되어 싸우는 인물이 감람나무입니다. 짐승은 용을 등에 업고 싸울 것이고, 감람나무는 주님을 등에 업고 싸웁니다. 용하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권세를 받은 짐승하고 권세를 받은 감람나무가 싸운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지극히 높으신 자를 괴롭힌다고 하면서 짐승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높으신 자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단시일에 양산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단7:2-3, 계7:1-3) 이것은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역사를 시작할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4대 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4대 강국이 집결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하고 병행해 나갑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흔두 달하고 1,260일은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갖는 기간을 칭해서 마흔두 달이라고 했고, 빛의 세력이 움직이는 기간이 1,260일이라고 했으니, 이 기간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와 싸우게 됩니다.

은총이 있었던 곳에 사단이 틈타면 회복하기가 7배나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12:45) 그럼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기

가 쉽습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평범하겠습니까? 평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군대들을 우리는 정규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특수훈련을 하여 특공대를 편성합니다. 이 특공대는 일반 정규군하고는 훈련 방법이 다릅니다. 특수한 훈련을 합니다.

청와대를 박살내려고 김일성이 특수요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게 특공대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군대처럼 변장을 하고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일선에 수많은 군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몇 명의 북쪽 특공대가 침투하여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못 막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심장부가 결판나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정규군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특공대의 역할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적의 심장부를 찌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가 짐승의 손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쪽에서 도전하여 그걸 다시 뺏어야 합니다. 여기서 뺏고 뺏기는 장면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령이 아담, 하와를 꼬여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여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 측도 악령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뺏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뺏고 빼앗기는 전쟁은 바로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하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멸망 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우리 주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요6:40)고 말씀하셨는가? 마귀가 멸망 받아야 비로소

마귀에게 끌려간 영들을 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연관이 있는 신끼리의 전쟁을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가담하는 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줘!” 하는 문제가 제기 될 때에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앞선 역사는 어느 세력이 깨뜨렸습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만 계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에게 맡겨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인간에게 맡겨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연구한다고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사치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만 알고 일해라.” 왜? 극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신과의 싸움이 전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은 예언을 기록으로 남겼을지언정, 여기엔 해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너는 그때가 되면 은총을 입게 될 터이니, 편안히 쉬고 있으라.”(단12:13)는 겁니다.

굶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하나님 측에 있는 인물

도 정해졌고, 마흔두 달 동안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측도 정해져 있으니, 이 모든 내용들이 덮어놓고 전개되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만 어떻게 된다, 하고 천사가 말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을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그대로 두려고 하겠습니까? 변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악령과 성령이 직접합니까, 중간에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다.

적이 성도를 작살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도 지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 하여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60억 인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 역사상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초로 제가 밝힌 겁니다. 신끼리의 대결을 감히 누가 운운합니까? 싸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믿으면 다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앞에서 1,260일은 결국 두 감람나무에게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날 동안 무슨 옷을 입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어느 때 굵은 베옷을 입느냐 하면, 장차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을 예언하는 때입니다. 마흔두 달은 날짜로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260일입니다. 그럼 1,260일 동안 짓밟히면, 그대로 머물러야 합니까?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피난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 이것을 알

면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겁니다.

이 예언을 하는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걸 회복해 다오.” 하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신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목수 일을 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감람나무라고 무슨 표가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닌 근본 원리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악령의 침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지 않으면 끝이 안 옵니다. 끝이 안 오면 심판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왜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요6:54)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건 누가 사로잡히는 날입니까? 마귀가 진멸되는 날입니다.

짐승과 용을 사로잡는 날이 이르러야 세상의 끝이 옵니다. 그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한다, 그때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적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승승장구할지라도 그때 심판을 거쳐 완전히 끝

장을 보게 된다. —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시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게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천사는 “네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부를 그림 보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악령과 성령이 얼마나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악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앞으로 영의 세계를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66권으로 된 성서가 다 밝혀집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찢찢 매는 겁니다. 수많은 대신 학자들이 그거 좀 알고 죽으려고 철야 기도를 해도 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hapter 06.

하나님의 섭리와 감람나무 역사



신은 인간을 여러 세대 동안 한결같이 상대할 수 있어도, 인간은 신을 한때만 상대합니다. 그런 짧은 한때를 우리가 어떻게 섭리 가운데서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했던 모세 시대의 백성들을 자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난 동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폐단이 생겼는가, 어째서 그런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이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이 60여 만 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이들과 고령층을 합치면 100만이 넘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1,200만이라고 하는데, 만일 보따리를 싸 가지고 23개의 한강 다리를 건너간다면 보름이 더 걸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하여

도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모세 시대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출7:1)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신격화시킬 정도로 그 손길이 모세와 함께하셨지만, 그 시대의 섭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고위직이 있었습니다. 이들 정승을 삼정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인에 대하여는 정경부인이라고 존칭을 썼습니다. 그만큼 정승이라는 위치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선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삼정승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을 지낸 가문이다 하면 지금까지도 알아줍니다. 그런 정승도 죽으면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 있을 때 귀한 거지,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다음을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定義)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편히 살기 위해, 고통 받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를 애굽 민족의 압박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고통이 있어야만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지내는 것이 편안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열방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단일민족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했는가? 우리는 그 까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가 모세의 발자취를 거울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주의 종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감추었던 내용들을 캐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서 성공을 거두는 데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 뜻이 그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기독교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모르면 기독교의 뿌리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인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님을 탄생시킬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요8:56)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놈’이라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움직이실 때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밀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요16:24)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한국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교를 위한 전도 활동에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6.25동란을 기해서 ‘섰다 하면 교회요, 났다 하면 불이다.’ 하는 용어가 유행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섰습니다. 그건 6.25동란 직후에 교회를 통해서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랑스나 미국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대원군 시대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증거의 성령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지성소에 불러 올리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앞선 감람나무 역사의 주인공이 나타나면서부터,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순교하지 않고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역사가 돌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복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면서 29년 동안 겪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대표적일 일 몇 가지씩만 기록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씩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의 움직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요동치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때, 제가 어떻게 일일이 간섭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숫자도 그런데, 모세가 60만 명을 어떻게 인도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싫은 것도 보셔야 하고, 노하심도 겪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긴밀하게 대화도 하시고, 때로는 모세가 이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난 너희 백성들을 더 이상 보기도 싫다. 내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자식처럼 길렀는데, 너희들이 하는 꼴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다 쓸어버릴까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러니 내 사자를 보낼 테니 네가 알아서 끌어가거라!”(출32:34, 33:3 참고) 그러니 모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 역사는 제가 성경에 기록된 감람나무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주시지만, 땅에서 일은 제가 합니다. 저는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일

이 관여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겁니다.

우리 역사는 주의 종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은 제가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구석구석 주의 종의 입김이 스며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다루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마땅치 않으면 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맡아 일하니까 무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권한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계11:3)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29년째 저와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황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서에 쓰여 있는 기독교 역사는 압니다. 그러나 현재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주의 종밖에 모릅니다. 왜냐? 그건 전쟁에 관한 극비 전략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역사는 무엇을 박멸시키려는 겁니까? 마귀를 박멸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박멸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마귀가 총동원되어 대적합니다. 전쟁은 힘이 있어야 상대를 이깁니다. 말로 떠든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기만 합니다. 저는 이 역

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한평생 짐이 된다.

“내가 앞선 역사에 은혜를 물 붓듯이 보내주었잖느냐? 그게 누구의 거냐?”

“주의 겹입니다.”

“그런데 그걸 짓밟는다.”

주님이 앞선 역사에 대해 크게 노하신 겹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에 그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민14:33)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들은 겹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주의 종 외에 누가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들으니까 아는 겹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 역사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해코지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세워져 나온 사람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직분을 내놓고 사회에서 살다가, 일을 하라고 해서 나와서 오늘날까지 일한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래라저래라 말씀도 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모세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니까 때때로 이래라저래라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일반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신념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나야 뭐,’ 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나날이 변모하고 발전하여 알차게 익어 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의 종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계2:10)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일반교회는 10명이 떨어지고 20명이 들어오면 부흥이 됩니다.

10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을 떠나면 알곡이 되어야지, 새사람이 와서 자리나 채우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너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년 됐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아내와 남편이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서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남편 앞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한다고 남편이 어떤 이득을 받을 겁니까? “여보! 이게 웬일이오.” 하고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흔들며 땅을 친다고 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걸 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 세계에 가도록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종의 할 일입니다.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손을 써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책임이 그만큼 큼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적으로는 없는 가운데서 바동거리며, 주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가로막혀도 그때그때 싸우면서 넘어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갖가지로 괴롭히는 가운데서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평 땅 상천리라는 시골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

를 운운하니까 우습게들 볼 겁니다. 그 구석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 겁니까?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때, 그 배가 당시에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배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께서 “인자의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핵무기를 만든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핵무기는 다 어디 저장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지진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핵 저장고가 흔들릴까 봐 가장 염려했습니다. 그 저장고가 터지면 지구가 큰 지진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터졌다 해도 그 낙진 때문에 모든 나라가 크게 오염됩니다.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개국 이래로 이런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단12:1) 그건 뭐냐?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영의 세계의 전쟁은 물론 육적인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이 안이 캄캄해도, 전구 하나면 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비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고생을 함께하는 이유도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최첨단의 전술을 연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한편 주의 종도 이런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Chapter 07.

보혈의 귀중성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살기 위해 허덕이고, 또한 아옹다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싸움입니다. 성서에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딤후4:7) 제3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는 소위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피의 역할, 즉 유전에 대한 원리가 더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전인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인자를 가리킵니다. 미국 사람과 소련 사람은 똑같은 백인인데도 그 유전인자에 따라서 모습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똑같은 동양인인데도 자세히 보면 외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로써 언약을 맺자.” 해서 할례를 지시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피가 됩니다. 인간도 큰 언약은 피로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을 때 ‘피로 맺은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는 바로 주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게 됩니다. 수혈은 환자의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 냅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피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 피는 곧 생명체가 되고, 생명은 곧 피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육체의 핏속에 혼이 담겨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혈관은 육안으로 보면 가느다란 핏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확대해서 혈관 속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상 중에 우리 핏속에 죄의 형상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핏속에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다, 정결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것이 신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명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 궁금증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조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이 저주를 받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갈3:13) 그러한 존재 속에 역사하는 피의 신령한 작용을 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의학적인 차원에서 다소나마 이 피의 작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유전인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비유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안찰에 대해 아는 모릅니다. 다만 주께서 안찰을 하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직접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서 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만나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증거하고자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한 소리지만, 이 시대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의 믿는 분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오늘날까지 29년 동안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인도하면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러한 중보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상 중에 영적으로 교류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벗겨지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논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영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 인간의 부족한 두뇌로는 해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깊이 모르고 있는 것이 일반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양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들어와 실제로 생수를 사용하고 안찰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제3자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충분히 납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몸에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요컨대 피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지극히 작은 생명체를 핏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수태했을 때

아기를 키우는 피가 몸 안에 있지만, 수태하지 않았을 때는 이 피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경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피를 받거나 남에게 수혈할 때에도 주는 사람의 피와 받는 사람의 혈액형을 따집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Rh-형이다, 뭐다 해서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만일 그 혈액형을 구하지 못하면 환자는 죽어 버립니다.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는 소생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주의 형상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요, 생명은 곧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6:55)

오늘날 과학은 이 피의 근원이 되는 유전인자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복제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복제인간이 그겁니다. 과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깊은 내막을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이 피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는 부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핏속에 유전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하

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인간이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불이 그 사람에게 내려옵니다.(대하7:1, 레9:24 참조) 주님이 드린 보혈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리저리하게 내려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체에 임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가 임한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핏속에 누구의 피가 섞이게 되는 겁니까? 주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엔 안 보여도, 생명의 인자가 안 변합니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인자가 주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인자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엔 안 보여도.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의 형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 원리로 주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생수로 보내겠다는 약속대로,(계21:6) 그 생수가 온다면 주의 피가 온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피가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신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보혈의 제사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여 이슬이 내렸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주의 보혈을 받고 있습니다. 느낌은 이슬인데, 그 영적인 내용은 누구의 핏입니까? 주의 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다 놓은 물에 주의 종이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겁니다.(계11:6)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상은 모르거니와, 받는 너희들은 안다.”(요14:17)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면, 생수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몸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심장에 느낌이 갑니다.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것은 그 사람 속에 주께서 마시라는 당신의 피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주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땅을 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던 것이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으면 금방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주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뭐니까? 주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요7:39) 그래서 그 물을 눈에 넣으면 영적으로는 주의 피가 되니, 그 피가 바로 악령을 물리치는 겁니다. 승리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 쫓겨 가기는, 예수 피를 보고 겁이 남이라.’ 악령이 예수의 피를 보고 겁을 내는 겁니다.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무슨 감언이설로, 사이비 종교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 이슬이 내렸다면, 주의 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외국 가는 사람이 물을 못 가지고 가니까, 빈 물통에 주의 종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외국에 가서 빈 물통에 물을 담고 기도할 때 그 물이 생수가 됩니다. 주의 피가 그 물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철야 금식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눅4:6) 그것이 감람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인간의 재주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물통을 들고 와서 주의 종한테서 축복을 받아 갑니다. 이때 그 물이 주의 피로 화하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축복하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깨가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요긴한 돌을 둘 터인 즉, 그 돌을 깨닫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롬9:33) 이 돌은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십 년 전부터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기

독교계에서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돼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계17:14)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어찌다가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게 됐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깨에 힘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라는 존재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야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면 그 질그릇이 귀하게 보이는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 속에 보배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언제나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은 고귀한 그리스도의 섭리가 주의 종과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한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수많은 사람이 나를 귀하게 보는 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긍지를 갖고 신앙 생활을 해도 흠될 게 없습니다.

Part 02.

면류관과 바꿀 때까지



8. 어둠을 물리치라 · 9.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10.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 · 11.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 12.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 13. 케네디 우주센터를 돌아보고

Chapter 08.

어둠을 물리치라



세계 인류는 크게 나뉘어 삼색 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이 그것입니다. 즉, 셈, 함,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이 인류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체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가 소상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우주 못지않은 엄청난 체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이 영구히 존재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별도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별이 폭발해서 사라지면 거기서 또 다른 별이 생기고, 또 그 별이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폭발해서 사라지면 또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가 크게 늘어가는 것처럼, 별들의 수도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

늘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대한 우주나 인체의 구성에 대하여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피의 생명력에 대해 현대 과학이 입증하는 선에서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준다고 기록했습니다.(요6:54)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우리가 갖고 있는 피가 연결되어 일어나는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덮어 놓고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넣어서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융화되어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과 기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유조선이 채취한 기름은 바다 위에 뜹니다. 그것은 바닷물보다 기름이 가벼우며, 바닷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

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을 가공하여 처리한다면 섞일 수 있게 됩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인간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데, 즉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신을 사람과 연결시켜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신과 인간을 사실상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애정이 싹트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6:3)

그 후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를 배출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요15:26)

그런데 2천 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인 것을 제자들은 보고 들어서 알지만, 저는 그들보다 2천 년 후의 사람인데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상세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비둘기, 양, 수송아지 등, 이런 제물처럼 주님이 대신 생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엡5:2)

그러면 짐승을 제물로 드린 제사로 인간들에게 내려보내는 불의 성령은(레9:24, 대하7:1) 뜨겁게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내려보내는 성령은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요7:38)는 말씀처럼,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요7:39)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제물이 뭐냐? 비둘기, 양, 송아지입니다. 그 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성령은 시원한 생수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생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불과 같은 은혜가 왔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불같이 내린 성령이 오늘날까지 수십억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2천 년 동안, 앞선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2천 년 동안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성령이 내리지 않고,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렸습니다. 왜 생수의 성령이 내리지 않았는가? 주님은 그 당시부터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이긴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신 겁니다.(계21:6-7)

그러다가 앞선 역사에서 이긴자가 나타나 주께서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2천 년 동안 각 민족을 상대로 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보내, 순교자를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긴자가 나오니까 그에게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권세를 맡겨서 역사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긴자를 통해 생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그것이 앞선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감람나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없던 생수가 만들어지고, 이슬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신 겁니다. 감람나무가 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2천 년 동안 각 민족을 상대하여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런데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이렇게 되었으니, 네가 다시 세워야 해.”

“네,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선다고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암만 떠들어야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보낼 은혜는 생수의 성령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생수의 은혜가 내렸습니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생수는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는데, [\(계21:7\)](#) 이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 나온 존재가 앞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열심장자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5)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피에 주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닮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이걸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방송 송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산 탑에서 전파가 나옵니다. 이 전파를 받아 가지고 중간에서 전해 주는 것이 라디오입니다. 방송국에서 전파가 와 봤자 그대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귀에 들리도록 바꿔 줍니다.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주님의 보혈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 주의 보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의 생명체를 이루려면 주의 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면 생수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고,(계21:7) 또 이슬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호14:5) 그러므로 그 예언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요

14:16) 그를 ‘이긴자’ 라고 합니다. 이긴자가 신입니까? 이긴자는 사람인데, 신이 그와 같이합니다. 그리하여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줍니다. 그런데 이긴자는 사람이니까, 사람과 접촉하기 쉬운 겁니다.

그 이긴자는 어떻게 신과 접촉이 되는가? 이긴자에게 신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과 연결이 되면 주의 피로 이루어진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슬이 내리는 느낌이 옵니다.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불로 오는데, 주님의 피는 이슬로 오게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이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피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눈엔 안 보여도, 가령 이슬 같은 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핏속에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안찰을 받을 때, 상대방의 눈에 내 손을 댔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든가 메스껍다든가, 뒤통수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안찰을 할 때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누구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까? 주의 피로 말미암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가 그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피를 주의 피로 정확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의 생명체로 바뀌지는 겁니다. ‘주의 귀한 형상을 저도 입게 합소서.’라는 찬송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에 주의 피가 작용하는 겁니다.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계 13:3-6) 모세는 육적으로 움직였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겁니다. 생수에는 주의 보혈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에서만 이 생수의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다 쏟아 버리고 짓밟게 되면, 누구의 피를 더럽히는 죄가 됩니까? 주의 피를 짓밟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앞선 역사가 그런 죄에 떨어진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요7:38) 하고 초막절 끝 날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걸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날 변질된 감람나무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초라합니까? 그러니 이게 일반인들에게 쉽게 납득이 가는 얘기냐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순교자들은 목 베임을 받은 대가로, 죽어서 시체가 아름답게 변화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

령을 받은 성도들이 나중에는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무참히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받아 사단을 진멸할 수 있는 당신의 군병으로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모든 희생을 폐지하고자, 만인을 구속시키려는 제사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2천 년 동안 기독교가 그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독실한 신도들이 수없이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작업을 2천 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니, 그런 처참한 죽음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대가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그냥 세마포를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하지 않고도 순교자의 대열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엄청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시체를 놓고, ‘우리 원수 마귀 쫓겨 가기는’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찬송하여 시신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변하게 해도, 불신자가 ‘애고, 애고!’ 하면서 만지면 금방 다시 시커멓

게 변하고 딱딱하게 굳어 버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걸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생수 축복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앞선 역사보다 10배나 강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회장님들이 앞선 역사에서보다 고생을 덜합니다. 시체가 쉽게 변하니까.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저의 오빠가 돌아갔습니다.”

“믿었어?”

“안 믿었습니다. 세상에 묻혀 술 먹고 담배 피우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동생을 생각해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담긴 생수를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변하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면 저의 것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옵니다. 저를 놓고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고 백 번 떠들어야, 저하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슬이다, 향취다,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 지성소에 가시면 주님이 맞이하

쉽니다. 그리하여 지성소에 있는 영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찰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데서는 한 평생을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던 분들도 죽으면 푹푹 썩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축복한 생수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평생 새벽 제단에 나가 금식 기도해도 해결 못하는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도 사람인데 이런 꿈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비롯하여, 모두가 위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과 싸우면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 죽으면, 여러분이 뭘 어떡할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다릅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찰해서 제 것을 준다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것이 내려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수가 바로 그겁니다.

물이 변하여 누구의 피가 된다? 주의 피로 변하는 겁니다. 제3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의 크신 은혜입니다.

29년 동안 주의 종이 다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설교 15집을 내고 있는데, 내가 가정방문을 해 보면 설교 집을 제대로 갖춰 놓은 집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집을 다 구해서 세트로 갖춰 놓도록 하십시오. 그 설교집은 오늘의 새 성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감춰던 말씀들이 담겨 있으므로, 집안에 모두 비치해 두십시오.

일반교회에서는 신학 박사님들도 설교집을 내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하여 설교집 한두 권이 나오면 그다음에 연결을 못해서 찢 찢 맵니다. 금요일쯤 되면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난리들이고, 다음 설교는 이겁니다, 하고 미리 광고를 합니다.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전하여, 이렇게 많은 설교집을 내는 건 이긴자 감람나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이슬이 내립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불담이 되어 나와 함께하십니다. 신께서 0.1 초도 떠나지 않고 이긴자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교하지 않고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는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영에 대해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런 섭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Chapter 09.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2천 년 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기독교는 그 말씀대로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게 마련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는 설사 인간이 죽었다가 백 번 살아나도 백 번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부활이란, 전에도 말했지만 썩을 인간이 썩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전15:54\)](#)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깊은 영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해명해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절마다 주의 종이 부활에 대

해 조금씩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오실 적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본래의 신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에서 신의 형상으로 변하신 겁니다.

근자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 30년 전에 달나라에 갔습니다. 이 달나라라는 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첫째 공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가도 죽지 않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지구에서처럼 숨도 쉬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달나라에서도 지구에서처럼 살 수 있게 해 주는 옷입니다. 우주복이 없으면 달나라에 갔다가도 곧 죽어 버립니다. 달나라는 보통 영하 150도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영하 30도, 40도만 돼도 사람이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이 바로 얼어 버립니다. 영하 150도면 대단한 겁니다. 밤이면 보통 영하 140도로 내려가는 달나라에서 살려면 우주복이 보호해 줘야 합니다. 우주복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받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없는 달나라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달나라에 있던 어떤 생명체가 지구에 왔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공기가 없던 곳에서 살던 생명체가 공기가 있는 지구로 오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낚시를 할 때 보통 10m쯤 되는 바다의 깊이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면 잘 삽니다. 만일 20m 밑에서 사는 고기를 낚시로 잡아 올리면 금방 죽습니다. 왜 그러냐? 20, 30m 밑에 있던 바닷고기는 높은 수압을 받고 살다가, 밖으로 나오면 몸뚱이가 팽창하여 숨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귀가 멍멍해집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구 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구를 떠나게 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지구를 떠나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의 존재로 계시던 분이 지구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활이 전제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주께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 갈릴리 앞바다 쪽으로 갈 테니 그리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마26:32, 28:7) 막달라 마리아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주님에게 향유라도 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구를 막아 놓은 큰 돌이 굴러가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이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은 없고, 주님을 감았

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육신을 가졌던 주님이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을 로켓에 실어 달나라에 내려놔도 못 삽니다. 하늘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려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가야 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저주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육체가 변하여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야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다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주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큰 의미는 지상에서 사는 조건을 하늘나라에서 사는 조건으로 바꿔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는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돌을 굴러 놓은 놀라운 또 다른 존재들이 무덤 속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에 광채 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요20:12) 그들은 누구인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님의 육신을 사라지게 한 하늘의 사자들입니다.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된 사람이 죽으면 이들이 하늘나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를 입게 된 사람은 그때 주님이 어

떻게 하늘나라에 가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의 생명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체와 같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지만, 이분들의 생명체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요14:6)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육을 가지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변화돼야 합니다. 이때 육의 장막은 사라지고, 영의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의 생명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늘나라로 갑니다.

달나라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자격자들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 봐야,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음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요14:2)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순교하게 하여 하늘나라에 불러올리셨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시키는 최대의 비결입니다.

주께서 사흘 동안 누워 계셨던 무덤은 주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네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24:5)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볼 때, 천사가 “예수께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행1:11)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나라로 올 수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새 생명체를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불러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성전을 통해 목 베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순교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Chapter 10.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이 인간의 육체를 놓고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니라.”(렘32:27)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 육체를 뺏고자 하는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은 피비린내를 불러 일으키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죄인을 처형하는 제도에서, 총살을 하거나 칼로 목을 치거나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형 제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범죄자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게 뭐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

돌로 때리면 사람이 금방 죽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목숨이 한참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로 쳐 죽이는 광경을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사형 제도는 정말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형 제도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항복하면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아시아 민족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정사정없이 무작정 폭격했습니다. 초토화시킨 겁니다. 이것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구축함, 전투함 할 것 없이 미국의 해군력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에 맹호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월남은 밀림지대입니다. 그래서 베통이라는 월맹군은 게릴라전을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속이나 숲 속에서 잘 싸웁니다. 미국은 고성능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밀림 전쟁에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화학무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쏘아 대었으나, 땅속의 적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아 극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초토화 작전이 그것입니다. 공격할 어느 지역을 정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도 하나님과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

을 모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역사하는 동기와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내용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차원이 아니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수천만을 대신하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수천 만 인구는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 된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반교회와 우리 역사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시에 지구상에 수천만이 살고 있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 수천만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게 되시면 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은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에게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일 때 노아와 그의 식구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물이 아니고 불로 멸한다면 하

나님은 노아에게 불을 막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이 아니고 물로 멸하므로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노아에게 불을 피해 탄 데로 가 있으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살아남으려면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를 짓게 하신 겁니다. 이때 노아가 할 일은 뭐냐? 자기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정대로 처참하게 죽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새 민족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또 왜 택하셨는가? 성경에 이유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창11:6) 아까는 여러 민족 중에서 노아를 택했고, 이번에는 노아의 여러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까지는 노아의 자손들을 상대해 주셨던 겁니다. 홍수로 멸한 이후에 하실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

제부터 열방 중에서 너만 상대하겠다.”(창12:3 참조)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순간부터 열방들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모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맺은 순간부터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따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창15:5) 하나님은 홍수로 열방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하시려다가 여의치 않게 되어, 그 많은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쥐새끼 한 마리도 남겨 두지 말라.”(신20:16)는 것이었습니다. 초토화시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참혹한 전쟁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받았을 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초토화 작전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짐승들도

한 식구가 되면 친해지는 법인데, 같은 인간을 다 죽이면 어찌 인간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이해가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사55:8)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을 자초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리가 없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여 인정사정 보아 가나안 민족을 살려 준 것이 세세토록 찢리는 가시가 되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선약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동산에 들어올까 봐 천군 천사들을 시켜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무서운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백성들을 어둠의 손아귀에 빼앗겼을 때 이걸 다시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은총을 베푼 것이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였습니다. 그 감람나무 역사의 은총을 받았던 신앙인들이 어둠 속에 빠져들면 대단히 악해집니다. 주님은 한 번 은혜를 받아 거룩해진 사람이 다시 더러워지면 7배나 강하게 악령이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귀의 손에서 다시 뺏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작업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게 됩니다. 그게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특한 비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인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유전인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흠으로 빚은 후 넣은 생기에 대해 과학자들이 근사치라도 설명할 시대가 올 것으로 봅니다.

요즘 전자현미경에 의해 유전인자의 근원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세계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유전인자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력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 내는 겁니다. 과학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육체의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할 때 적을 비참하게 싹쓸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하나님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할 때도 비참할까요, 아닐까요? 비참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사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시110:1)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귀를 박멸시킬 때 인정사정을 안 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아서

야 합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당시에 살던 수천만 명의 족속들은 하루아침에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람나무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받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세상이 그런 대로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버립니다. 그건 위에서 하시는 거지,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수천만이 살고 있을 때 노아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신자가 수억이고, 목사들이 수십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혈혈단신으로 있는 당신의 종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를 돌이켜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통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을 없애 버리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던 다른 열방의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상상이나 합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겁니다.

“네가 사는 곳에서 1시간 남짓,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니, “이 성전을 거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 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말씀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역사를 무조건 욕하여 주의 종이 고스란히 당합니다. 그러나 역전될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제 주님은 무참히 짓밟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교자들도 이 땅에서 무참히 당했습니다. 그들이 상대에게 보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계6:10) 이때 주님은 “너희와 같은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령과 악령의 마지막 전쟁을 어느 시대에도 보지 못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계16:16)

영의 전쟁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죽으면, 모세가 죽었을 때처럼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유1:9) 성령과 악령이 싸우는 겁니다. 성령이 이기면 시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고, 지면 썩어 갑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은혜 줄에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년만년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핵 무기를 만든 것을 인간들이 후회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핵 보유 국가들은 지진이 일어나 저장해 놓은 핵이 터질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전에 미국이 당한 빌딩 테러로 36억 불이라는 경제적인 손실이 났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1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입니다.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불과 3초 안에 일어난 겁니다. 2분, 3분 흔들어 놓으면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라 해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30분 동안 흔들어 놓은 겁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성이 그냥 땅속에 묻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오늘날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이 섭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섭리 안에 있는 한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 섭리 안에 있을 동안은 특별한 은총을 받지만, 일단 슬하

를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여기서 받는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이영수한테 와야 받는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섭리를 벗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29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저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 본들 뭘 합니까? 저를 따르는 여러분들까지도 조금만 비위에 맞지 않으면 벌써 원망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마땅치 않게 여기면 마귀가 곧 사이를 뚫고 들어가 휘저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도 모르게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그 사람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악령이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악령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마음을 마구 들쭈셔 놓습니다.

균이 그렇습니다. 균이 인간의 몸에 침입하면 인정사정없이 막 퍼져 나갑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여 항생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균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균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균끼리 싸웁니다. 이것도 빛과 어둠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이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어둠이 빛을 말아먹습니다.

이 우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이라는 게 그겁니다. 어둠이 빛을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취

도 행세를 못합니다. 어두울 때 불을 켜면 환한데, 블랙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도 어둠이 삼켜 버리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역사에 몸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서 믿는 분들은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보다 몇 백 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노력을 덜 하는데도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받지 못하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깊이 모르니까, 조금만 계산이 맞지 않아도 그저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는 길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찌 다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안 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집니다. 기껏 신앙을

길러 놓으면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마음의 아픔입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힘들니까? 좀처럼 오지를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데도 귀를 막아 버립니다. 아무리 깊은 진리를 전해도 감람나무다 하면 왔다가도 신발 들고 나가 버립니다. 그런 설움 속에서 우리는 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체계가 어느 정도 섰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주의 종을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주의 종을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말을 듣고 납득한다는 건 기특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의 말이 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쳐서 엇치락뒤치락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 내고 오늘날까지 저를 따라주신 겁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이 아닙니다. 여기는 뺏느냐 뺏기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이 여러분들과 한 평생을 같이하면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끌여가는 겁니다.

이긴자의 소임은 정말 피곤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화려합니다

다. 그러나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일 같으면 당장 그만둘 겁니다. 그거 고통스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Chapter 11.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계신다, 안 계신다, 하고 논란은 있을 지 몰라도,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급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능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속에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맏소사!’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근황입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나 영음을 들은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근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천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부리시는 네 생물들도 사실은 천사장인데 소나, 사자, 혹은 독수리 등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가리는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모습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일 네가 나를 보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눈부신 광채로 말미암아 쓰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용접을 할 때, 그 광채 나는 것을 육안으로 보면 우리 눈은 실명해 버리기 쉽습니다. 또 오래도록 캄캄한데 갇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에 나와 눈을 뜨면 역시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육체가 달나라에 그대로 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주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우주복은 인간이 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의상입니다. 영의 세계도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 적응할 수 있는 곳이지, 우리처럼 육을 갖고 적응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을 하자, 빌립이란 제자가 그 하나님을 한 번 보여 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하고 수년간 같이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 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 속에 하나님

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요14:9-10) 주님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육을 갖고 계시던 주님 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도 본래는 영이십니다.(고후3:17) 원리적으로는 일체라 할지라도,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밧모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본체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본체를 바라본 사도 요한은 눈이 부셔서 곧 쓰러졌습니다.(계1:17) 주님의 그 광채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광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체를 가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도 구름으로 가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직접 못 보게 가리신 겁니다. 인간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러지자 주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메시지를 너에게 알려 주려고 한다. 지금부터 내가 네게 보여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내가 택한 일곱 교회의 목자들에게 전하여라.”(계1:18-19, 11 참조) 이것이 요한 계시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모습을 네게 보여주면 네가 죽는다.”(출 33:20)고 말씀했으니,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대하거나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하시고 대화를 해 주신 모세도 직접 보면 죽는 판인데, 다른 사람들이야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서에 기록된 아담, 하와의 시대를 한 번 보자 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한 존재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동산 가운데서 이 과일은 먹지 마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뿔뿔하게 뿔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러저러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사도 요한에게 알려 준 겁니다.(계 22:4)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사도 요한도 영광의 주님을 보자 쓰러지는 판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뿔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면 마귀의 사자가 옵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겪는 일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편찮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이 돌아가시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요20:12) 그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주님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두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지자마자 하나님을 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순교하여 산 제사를 드려야 그 대가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행7:60)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생수의 축복으로 굳어버린 시체가 부드럽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게 두 감람나무 시대에만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자에게 생수를 발라서 피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야 뿔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긴자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피는 이처럼 소중한 것인데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국의 기독교인 1,200만이 들어나 보았습니까? 그들은 생수라는 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생수에는 주의 보혈이 담긴 겁니다.(계11:6)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체를 이뤄 갑니다. 그리하여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12제자를 비롯한 120문도들은 불과 같은 성령은 받았지만, 생수의 성령은 받지 못한 겁니다. 왜 못 받았는가? 바로 이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계21:7) 그러니 이긴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뭐, 교회가 없어서 오늘날 알곡성전 하나 지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쳐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내 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씀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요컨대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끌어가는 방법이나 내용이 일반교회와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 돌아가시게 될 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은 광채가 나는 옷입니다. 성경에 순교 당한 영들에게 주께서 세마포, 즉 흰 두루마기를 나눠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계6:11) 이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을 입혀 드리는 작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뭐냐?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 권세를 저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계2:17, 11:6 참조) 그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뺏고 뺏기는 싸움입니다.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화해지므로, 천사의 안내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 도마야, 지금은 네가 나 가는 곳에 못 간다.”(요14:3-6)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그 세계에 가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토록 뵈고 싶어 했던 주님을 직접 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기 때문에 뵈게 되는 겁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22:3-4)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주님을 뵈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입니다.(계21:27)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자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이들의 수는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계14:1) 이것은 누구를 뵈 수 있다는 표적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뵈 수 있는 표적입니다.(계22:4)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였는데, 그게 그림자였던 겁니다.(출28:36-38)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바로 주님을 직접 뵈고 말씀도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드리려고 주의 종이 무던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그대로 믿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일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끌어온 지가 29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32살에 이 역사를 시작한 제가 어느새 회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계에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소상하게 가르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믿게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은 눈만 뜨면 현실과 마주칩니다. 때도 묻고 먼지도 쌓입니다. 그걸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형상을 닮게 됩니다. 이것은 주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피가 같으면 형상이 같아집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같아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므로 온전한 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체로 화해되면 영과 영끼리 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구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코에는 향취가 느껴지기도 하고, 온 몸에 이슬이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아직 이런 체험을 못한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루에 한 번, 한 10분씩이라도 시간을 정해 좋고 기도해 보십시오. 몇 번 해 보고, “안 오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연결 받기까지는 한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전부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은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덮어 두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주의 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만 안찰을 받으면 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동화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위대하기를 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박사들은 저 밑에 여럿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저와 함께하시고, 이진자의 막중한 권한이 맡겨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들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 가시면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이진자가 나오면 이리저리한 혜택을 입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이런 분이 될

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도 후세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미리 알고, ‘나는 그때 무덤 속에 뼈다귀로 있겠지만, 그분께서 나를 음부에서 건져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던 겁니다.(사16:10)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를 너희 선조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듣고 보니, 너희 눈과 귀가 복이 있다.”(마13:17)

여러분들, 이사야는 대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나드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사52:7) 하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산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르고 넘나들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곡성전에 들어오시면 그 내용을 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을 아셔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 역사도 먼지에 불과합니다.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빛의 역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답답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나 힘들니까? 가령 하늘에서 은총이 주의 종에게 10개가 와 있어도 2개나 3개를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앞선 역사가 그렇게 된 다음부터 우리 역사가 그만큼 불리합니다. 그래도 해 나가는 겁니다.

말이 뭐 필요합니까? 전쟁은 이기고 봐야지, 진 다음에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고 변명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패한 자는 승리한

자의 종이 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면서 “저는 이래서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유를 말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계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믿고 의지하면서 불도 처처럼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밀어 달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 동참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안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아는 나도 눈만 뜨면 육에 매이는데,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은 한 단계 처진 입장에서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의 세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육의 세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약4:14)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은 이 역사를 정성껏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을 계

확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매듭을 짓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녀나 신부를 보십시오. 외롭게 살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 교황을 보십시오. 노인네가 총각 아닙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참 경건하게 사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섭리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들의 열성과 경건함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그분들은 못 받습니다. 섭리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스가랴에게 내가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차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제3자가 들으면 꿈 얘기만 내세운다고 비판할 겁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66권이 이상 중에 하신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지, 지시 아니고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됩니다.

Chapter 12.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일어난 역사는 영원한 그 세계에 이르는 청사진, 다시 말해서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움직임을 먼저 자상하게 살핀 후에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웅장한 대서사시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내린 하나님의 지시는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될 영의 세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것이고,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주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 계시록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실 때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전한

때는 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라는 메시아는 창조에 동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요1:3)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창1:26)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당신의 존재를 좀 더 뚜렷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요17:5) 하고 말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면 인간이 지으심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을 짓기 전에 계셨던 주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주님을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시110:4)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자리를 주시느냐 하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메시아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할 그에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

려우므로 보류하겠다.”(히5:11)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복잡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언제 적 사람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낮습니까?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님께 내주신 자리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다음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지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 시대의 얘기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예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체계가 많이 섰으므로 그런 내용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일반교회 신자들이 들으면 “아이쿠!” 하고 놀랄 겁니다. 일반교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그러니까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 운운하신 것은 ‘영광 중에 계셨던 그때를 상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말입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 못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대목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신의 존재가 신에게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다. 사람의 형상을 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신의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게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계5:11-12) 그래서 주님이 모든 권한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파와 오메가니라.”(계22:13) 알파와 오메가의 존재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다 이겁니다. 지상에서 육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벗어 버리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1:18) 하고 주님과 요한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광경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계3:22) 지금 저는 성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원래 누가 차지했던 자리입니까? 주님이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2천 년 동안 순교자를 배출시키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신 겁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제사장 자리를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대제사

장에게 연결되는 숫자는 성서에 14만 4천으로 못을 박아 놔는데, 이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직결된 인물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를테면 하늘나라의 호적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호적에 오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사는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어린 양은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계 13:12)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무엇이나? 왕 권세를 행사합니다.(계 20:4, 22:5) 하늘나라에는 14만 4천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죄권과 정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계 20:6)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의 권한은 엄청난 겁니다. 그 권한을 세세토록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슬하에 들어간 억조창생들은 14만 4천의 왕의 말 한마디에 형벌이 정해지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생전의 일대기가 마치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상에 살았을 때의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

어진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받는 안찰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까? 그러나 안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직결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첫 열매되신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2천 년 동안 믿는 자들을 다스려 오신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게 속하는 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14만 4천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2:26)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자리를 받으신 분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로 직접 가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오늘날 주의 종에게 권한을 맡겨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찰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달나라에서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도 엄청난 보물이 됩니다.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조그마한 돌덩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금의 몇 백 배나 비쌀 겁니다. 달나라 돌멩이니까. 앞으로 화성에서 가져온 돌멩이는 손가락 하나만 하면 아마 몇 백 억은 될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화성에 가려면 총알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8개월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의 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머나먼 곳에서 주의 종이 “성령을 보내주소서.” 하고 간구하면 0.1초도 안 돼서 기도가 올라가고, 0.1초도 안 돼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빛의 속

도가 어떻게 해 봐야, 게임이 안 됩니다. 성령의 움직임은 그렇게 빠른 겁니다. 이것은 빠르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 집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화해된다면 그렇게 달라 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보여 주셨던 장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할 테지만, 안찰을 하면 이슬이 짝 옵니다.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그렇다고 내가 “권사님! 지금 이슬이 옵니다. 생수가 옵니다.” 하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걸 값없이 받고 가시는 겁니다.

지난번 직원회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곳 알곡성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선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거하는 곳에서 사방 약 500m는 은혜로 연결돼 있으므로, 그 혜택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왕하6:17 참조) 사이비 냄새가 난다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귀증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뒤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 순간부터, 제가 한 얘기대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뒤따라갑니다. 가서 서로 만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난 정우현 선생님을 꿈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잊히지도 않습니다. 생전에 그 양반과 만났고 스톱을 치곤했던 사이입니다. 그분이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나하고 친했습니다. 꿈에서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제가 살아 있을 때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50%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50%만 믿었어도, 당신으로서는 잘 믿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군고구마라도 함께 먹는 게 좋은 거지, 뚝 떨어져서 내로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 “이긴자가 나오면 내가 이기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앉은 것처럼,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계3:21)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데서 그토록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못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값없이 받습니다. (계 21:6-7)

주의 종이 맹물에 기운을 부어 넣으면 생수가 돼서 혜택을 받고, 여러분의 눈에 제 손이 닿으면 직접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선 역사가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섭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은혜가 아닙니다.

Chapter 13.

케네디 우주센터를 돌아보고



아담,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원시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날고기를 먹고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런 생활 모습이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다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 세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래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계는 빛의 속도라도 수십만 년이 걸려야 도착한답니다. 지금 성경의 천지창조론이 초라할 정도로 우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에 가는 데, 총알보다 3.4배나 빠른 속도로 가는 우주선으로 일곱 달이 걸린답니다. 그것이 곧 실현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미국에 가면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데, 그 평수가 우리나라 어린이 대공원의 100배 정도 되는 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쇠로 된 탱크가 보통 40톤인데, 로켓이 3,000톤이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것이 대기권을 벗어나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지구의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되는 별들이 폭발하여 그것이 우주를 떠다니는데, 그 쪼가리가 우주의 먼지입니다. 그 먼지 하나가 크게는 경상북도만 하고, 어떤 건 서울시만 한데, 우주에서 수도 없이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구에 가까우면 지구에 떨어지고 목성에 가까우면 목성에 떨어지는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그 먼 거리에서 목성으로 떨어지는 소행성들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가 아닙니까? 가공할 과학입니다. 그 엄청난 덩어리가 목성에서 부딪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지구에서도 보였습니다. 우리 지구가 3개 들어갈 만한 구덩이가 파였답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몇 배 크니까.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는 몰라도 그런 엄청난 폭발력으로 박치기를 하는 물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도 별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공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돌덩어들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다가

도 공기와의 마찰로 다 녹아 버립니다. 그 찌꺼기가 바다에도 떨어지고, 땅에도 떨어지고 해서 외계의 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달은 우리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쳐다보면 곰보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달에는 구덩이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구덩이가 계속 생깁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들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구덩이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른다.” 이게 답입니다. 사실 오늘날 주의 종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죽어 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따르는 여러분이 육의 장막을 벗어날 때 세마포를 입혀 드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미심쩍게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이렇게 두터운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치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최대의 충성을 하려고 맘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옥중에서 6개월 17일간 독방에 있었는데, 양떼들도 생각하고 생수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도관이 교체되는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찬송도 합니다. 이럴 때 이상 중에 광채가 나는데, 그 뒤에서 나를 쫓아오던 마귀들이 빛에 닿으면 마구 쓰러져 나가는 겁

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도 지금 너를 괴롭히는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그 광채뿐이다.” 이런 주님의 움직임은 우리가 시인하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할 처지도 못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납니다. 누가 시간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나를 다시 만날 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곳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라야 몇 명 됩니까? 우리가 살아 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한번은 제가 일찍 알곡성전 앞마당에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장소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한적한 곳에 내 집을 지어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처음에 알곡성전의 지붕만 덮어도 감지덕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유스호스텔 같은 건물은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이 지어지고, 지금 축구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옛날 하나님이 엘리야가 살던 사르밧의 과부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먹을 만큼 생기게 하신 일이 생각납니다.(왕상17:16)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제단에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가는 보통 비쌉니까?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주의 종이 빈틈 없이 해 나갑니다.

저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일밖에 모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대개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다들 처음엔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뭘 했다.’ 하고 지난날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언제나 ‘이제부터다.’,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돈을 얼마쯤 호주머니에 넣고 길을 가다가 포장마차 집이나 봉어빵집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럴 때 저는 생각합니다. 막노동 할 때, 배가 고파도 돈이 없어 풀빵 하나 사 먹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풀빵 굽는 냄새가 구수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곳을 쳐다보니까 한번은, 현장 감독 되는 사람이,

“야, 임마! 빵이 그렇게 먹고 싶으냐?”, “예.,” “내가 사 주마! 이리 와!” 그때는 빵이 꽤 컸습니다. 세 개를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가 나서 더는 못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봉어빵이나 이런 것을 즐겨 먹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그 대가를 기독교 신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해 순교를 당해 온 겁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여 순교해야만 세마포를 입는 이런 딱한 처지가 2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감람나무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해결된 겁니다. 이걸 기독교회가 아느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박 아무개를 들어 쓸 때, 네게도 기름을 부었느니라.” 나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역사가 건재할 때, 주께서 나에게 따로 하라 하실 때,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주께서 알려 주신 겁니다. 같은 감람나무이니 두려워 말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Part 03.

진리의 감주를 입고



14. 감람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 · 15. 피의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 16.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1) · 17.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2) · 18. 교만을 경계하라 · 19. 경각심을 잃지 말라(1) · 20. 경각심을 잃지 말라(2)

Chapter 14.

감람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렬한 신앙 운동을 펼치던 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때를 지어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동란으로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릴 때, 교회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지원받으면서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구약 시대 못지않게 고생을 달게 받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식민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저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람나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모세가 실패하고, (민20:12)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앞선 역사가 실패했으나 나중 역사가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 밖에서는 이런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영의 문제에 인간이 얼마나 아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도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성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간혹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움직였던 장소에 지은 교회나 유적을 살피다가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머릿속에 그리다가 그들을 직접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흔적을 놓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 신자들인데, 성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직접 만난다면 그 감회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 예언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안겨 드리려고 요즘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한 사람들은 그 감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요 14:9)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근황을 그림 보듯이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지구상에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 알곡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영국의 청교도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여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기독교를 재건하여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한국 기독교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했던 이긴자 감람나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등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제일 늦게 들어온 한국에서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청평의 상천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앞선 역사가 시작된 지 19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19년 만에 배턴을 이어가도록 작업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앞선 종이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데 불과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님이 저를 들어 쓰신 내막을 모르지만, 저는 주님이 그분을 쓰신 경위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8:7)는 구절이 그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디나 써 붙여 놓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속4:10)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역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처럼 비참한 출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앞선 역사의 주인공과 타협이 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가로막고 간 주의 종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죽이려고 한 경우도 있었지만, 딸을 과부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선 종이나 그분의 아들들처럼 악랄하게 나를 괴롭힌 것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도 심령이 완악할 대로 완악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면 7배나 강한 악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마12:45 참조) 그러므로 감람나무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다시 회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회생시키는 주의 종도 힘들지만, 당사자들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신령한 은혜가 내린다고 말해 봤자, 일반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 장로도 그렇게 했잖아?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제 겨우 건설을 좀 하니까, “어, 이 에덴성회를 우습게 볼 게 아니네.” 하고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있긴 있나 본데. 좀 알아나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시체를 훔쳐 갈까 봐. 그게 누구냐 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지키라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돌은 굴러가고. 로마 병정들은 덜컹 겁이 났습니다. 화가 미칠까 봐. 그러나 제사장들은 소문이 두려워, 로마 병정에게 돈을 쥐서 입을 봉했습니다.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 봉사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깨끗한 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깨끗이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그야 물론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축복했습니다. 깨끗하기로 말하면 산속에서 도를 닦는 중이나 도사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머릿속에 자나 깨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마무리 짓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날 원망했다 해서 그를 똑같이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 떨어진 사람까지도 옛날 추억을 되살리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저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들도 주께서 자른 겁니다.

앞선 종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지만, 이상 중에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장면에서 그가 누락될 때, 저는 주님께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선 역사의 종께서 옥중에도 두 번씩이나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그 양반이 나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옥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곡성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 식구의 3분의 1은 떨어지겠구나, 헌금이 3분의 1은 줄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육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한 푼이라고 벌어서 일하나, 하는 생각은 할망정, 누구의 처분을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주님에게 말씀드리고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서울 제단을 지을 때에도 돈이 없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잠이 들었을 때, “너를 따르는 양떼들 중에 이 사람이 돈이 있다.” 하고 김순희와 정병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노트에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며칠 몇 시의 이상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에이, 내가 알게 뭐냐?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고 저는 꿈무늬를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계속 간섭하십니다. 저는 막내 동생이 미국서 디자인 일을 해서 형편이 괜찮으니까, “야, 너 헌금을 좀 해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축구장 하는데 돈이 좀 달린다. 한 1억 보내라!”, “해 보겠습니다.”, “그거, 너 복 받는 거다.” 저는 형한테도 항상 그렇습니다. “십일조 어김없이 하고, 헌금 잘 하쇼. 그래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서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엄

병덤병 그냥 지내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어느 조용한 곳에 혼자서 며칠씩 가 있다 오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보이면 아내가 걱정하고, 안내원들이 불안해하고, 또 여러분이 염려하기 때문에, 차마 마음대로 못합니다.

건설부원들도 제가 먼지 구덩이에서 막일을 하는 것을 보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으레 내가 할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몸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못해서 탈이지, 모든 일을 제가 앞장서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역대에 없었던 놀라운 언약 가운데 몸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대도 깨닫지 못하고 왔다갔다만 한다면, 나중에 영의 세계가 베풀어질 때 비로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긴가민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람을 안겨 드릴 겁니다.

Chapter 15.

피의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오늘은 육체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에,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레9:26)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혈할 때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혈액형은 O형, A형, B형, AB형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처럼 육적으로도 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도 다른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핏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여 피를 검사하면 어디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육적인 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로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 피는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이나 호박을 함께 먹었는데, 우리 체내에 들어와 가공이 되어 피로 변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주님이 흘린 보배로운 피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영체로 화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물이 지상에서 피가 되듯이, 주의 피는 하늘나라에서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즉, 영적인 수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을 받을 때 이슬이 온다, 생수가 온다, 향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의 피가 영의 양식으로 화한 겁니다.

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원수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냐? 아닙니다. 원수가 될 정도면 상대방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된 사람을 보거나 만나게 되면 자연히 미움이 치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수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미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를 다시 미워하면 또 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도 못 본 척, 육해도 못 들은 척,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성령의 은총 없이, 안팎으로 그만큼 시달림을 받는다면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머리가 진작 터졌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주의 종은 끄떡없이 이겨 나갑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뜨거운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심장에서 그 스트레스를 걸러 냅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스트레스를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그냥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려니, 외부의 갖가지 압력을 막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은 우리 교인 개개인에게 신경을 쓰면서 이끌어 갑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의 인상이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찰을 하면 불과 2, 3초 동안에 그 사람의 핏속에 영적으로 주의 보혈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은혜가 0.1초도 안 걸려서 우리에게 연결된다면, 그 속도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공상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앞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혀 드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무쪼록 깨끗이 사셔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 남을 미워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남에게 추앙을 받던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앞선 역사에서 관장을 했던 사람들은 버릇이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항상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말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에 의해 새로워진 속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료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긴자에게 맡겨서 역사하시는 겁니다.(계21:6-7)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우리의 피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피로 영적인 수혈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후, 빼내심을 입고 진실해야 세마포를 입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 세마포를 입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핏속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체로 변하면 직접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나이가 64세, 65세가 되면 모든 기능이 둔해집니다. 본인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포조직이 쇠퇴해 가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안에서 성회장이 나이가 많아서 일을 잘하지 못해도 주의 종이 그대로 두는 이유는,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다가 영의 세계에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성회장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혹시 답답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위에서 정신력이 미약한 사람을 보면 이해하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움직이거나 말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하,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렇다.’ 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60인데도 옛날 전도사 시절보다 건강합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우처럼 저에게 찢리는 가시를 주신 건지, **(고후12:7)**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그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못 따라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건설부원들도 찢찢맬 겁니다. 나는 매일 새벽 네 시에 일찍 현장에 나가니까 따라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돈 걱정해야지, 시설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야지 — 그러나 잠 3시간, 4시간 자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날도 예배를 인도하지, 안찰하지, 또 손님들 만나지, 모임을 갖지, 이렇게 하면서도 버티는 건

뭐냐? 여러분과 피가 다르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성령이 항상 같이하여, 부정한 것에 오염되는 순간 곧바로 정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내 자신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다.’ 고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세마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몰라. 왜 축복이 안 오는 걸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는데, 이에 앞서 ‘내가 한 일에 진실성이 있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닥다리 높은 데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나하나 꾸준히 하다 보면 큰일을 이루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을 못 합니다.

우리 역사가 이만큼이라도 되어 가는 것은 위에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의 종은 잘 압니다. ‘우리 역사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네까짓 거 하나 없어도 별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치는 권모술수에 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치와 다릅니다.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넓은 지구상에서의 희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기사도 나이가 들

어서 저렇게 머리가 세어도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잘 보이냐?”, “예, 아직 잘 보입니다.”, “그래.” 이분은 긴 세월을 나와 같이 살았습니다. “언젠가 운전대를 놓으면 여행도 같이 가고, 여생을 같이 보내세.” 하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선교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끝까지 같이 지내다가 영의 세계에 가서 서로 만날 때 얼마나 반가울 거냐 하는 겁니다.

성회장님들도 저는 편안하게 끌어가려고 애씁니다. 또 성회장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한 것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애국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중근처럼 꼭 요란하게 해야만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공장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그가 애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 위치에서 힘을 기울이는 것 이상의 충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길은 작은 분야라도 정성을 기울여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곡성전에 들어와 돌멩이 하나라도 눈에 띄면 치우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도 되고, 종업원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Chapter 16.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1)



신학자나 또 일반 성도님들도 성서에 심취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요한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동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신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요한 계시록에 실린 진정한 내용을 알고자 무던히 애써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이 막히고 해서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덮어 두거나, 적당히 가감하는 경향이 있으나, 끝 부분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경고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만일 이 계시의 말씀에 빠거나 더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계22:18-19) 신학자들이 몇 십 년 동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안타까워하는 판이니,

일반인들이 봐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역사에 들어와서 주의 종에게서 분명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직접 본 광경이 기록되어 있고, 귀로 들은 영음, 또는 천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 그리고 자기가 느낀 소감도 기록되어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신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최고의 메시지(소식)입니다. 또 인류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큰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 7장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 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3) 하고 사도 요한이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계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지성소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집인데, 의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숫자에 포함될지는 선거를 해 봐야 압니다. 당선된 사람이 국회에 등원하여 아무 데나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배치한 자리에 가서, 자기 이름표를 보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천사들이 환란을 일으키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인 맞은 14만 4천이 배출된다고 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듣고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인 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친다고 했습니다.(계7:3)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계14:1)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긴자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계3:21) 보좌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컨대 이긴자에게 주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까지 하나님이 치시던 인을 이후에 주님이 치시고, 주님이 그 사명을 이긴자에게 주시면 다음부터 누가 인을 치게 됩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인 치던 작업을 이긴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안 되는 은혜가 여기서만 베풀어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전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남이 볼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신 분이십니다. **(히2:9)** 승천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과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셨던 주님과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내세워 역사하신 주님, 그다음에 오늘날 저를 불러 역사하시는 주님은 같은 주님이신데,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이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는 와중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계 3:21)**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인 치는 권한이 이전이 안 됩니까? 이전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전이 안 되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전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권한은 지상의 겁니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권한을 빼앗기면 하늘의 권한을 빼앗기는 겁니다. 앞선 역사

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선 역사가 깨졌습니다. 깨지게 되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그 권한을 빼앗은 자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뺏길 때도 통째로 뺏기고, 뺏을 때도 통째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전개되는 겁니다. 뭘 뺏느냐?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권한을 준 자가 이기면 어둠의 권세는 그대로 있게 됩니까?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영의 문제는 그렇다치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빛을 소유하게 되면 어둠이 손을 못 댁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어둠의 지배하에 세상을 떠나면 싸우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냥 음부로 직행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역사를 시작한 지 이제 29년이 되어 조금은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내 나라에 들여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셔야 합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인을 어떻게 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산 제물, 곧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들을 목 베임을 받은 영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계20:4)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목 베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순교자를 배출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인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주님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이나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나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얘기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일부러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인들 편안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2천 년 동안 여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이긴자의 출현입니다.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군병을 배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가능한 겁

니다. 그것이 이긴자의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병이 배출되면 하나님과 주님은 하늘에서 무척 기쁘십니다. 그리니 이걸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 치는 권세가 주님에게 넘어왔고, 주님의 권세가 이긴자에게 넘어와 감람나무를 통해 역사하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지상에서는 어떤 종교단체가 망했다고 보겠지만, 하늘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하여 앞선 역사에 부르셨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인을 쳐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직접 하시면 간단한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권한을 이긴자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2천 년 동안 주님이 순교자를 배출시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데려가셨는데, 지금은 이긴자가 하나님의 군병을 배출시켜 하늘나라에 올려 보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네가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한 군데로 집중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순교하지 않아도 단시일에 하나님의 군병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무척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 목숨을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긴자의 역사는 주의 피권세로, 순교하지 않고도 멜기세

텍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2천 년 동안 불과 같은 성령으로 세계 각국의 신도들을 직접 상대하여 역사하시다가, 이긴자가 나오면 그를 통해 역사하셔야 합니다.(계3:21) 그러다가 그가 쓰러지면 지상에는 주님과 그의 교류가 차단됩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회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군병을 채워야 합니다. 앞선 역사가 원만히 이어졌으면 일하기가 한결 쉬운데, 그렇게 무너지니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더욱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 명 중에는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경우가 있고, 주님이 인을 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는 이긴자 감람나무가 인을 쳐야 합니다. 이걸 우리만 아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1천 2백 만이나 되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믿고 천당 가려고 애쓰는데, 그 목사가 죽으면 세 시간도 안 돼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긴자가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썩었던 시신도 순교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해서 갑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이긴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볼 때 사이버적인 얘기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여

러분이나 어느 정도 알지, 이것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믿을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한 겁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기 때문에 정할 것은 정하고, 제할 것은 제합니다.(슥3:9, 계5:6) 아무 때나 못 하는 겁니다. 원죄, 유전죄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재료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죄가 소멸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 맞은 수가 만일 14만 명이라면, 현재 4천 명이 남은 겁니다. 하늘에서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3천 명이라면 앞으로 채울 숫자는 1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배의 뚜껑을 닫아라.” 비를 내린다 이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홍수를 노아가 내립니까? 노아는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을 끝내면 그 나머지는 하늘에서 하십니다.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은 듣고 기록만 한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도 엄청난 인물인데, 그 수를 지상에서 채우는 당사자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별건 대낮에 하는 얘기치고는 참 놀라운 얘깁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성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그게 어디 믿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따질 거 다 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안 그랬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질 거 다 따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찰을 받고, 생수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Chapter 17.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2)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계7:4)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은 지 얼마 후에 다시 이상을 보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계 14:1) 사도 요한은 그 수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이상 중에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학자들도 14만 4천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만들어서 내 나라에 들여놓으라.”는 소임을 맡은 자밖에는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는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구원받을 백성을 가리킨다고 막연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14만 4천이라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바로 앞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즉, 그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병을 가리키며, 이 수가 차면 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폭발선언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도취되어 박수를 치고 흥분했던 것을 우리는 회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배출되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을 배출했으며, 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배출되었는가를 알아보시다.

선지 성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하거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이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 이사야를 비롯하여 몇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에 대하여도 예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루어 나갈 때 “성경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니라.”(요18:9, 19:28)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장면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

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만 전해졌을 뿐, 그 외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애굽에 어떻게 가나, 살인자로 체포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겁니다. "꼬리를 집어라." 대가리를 집으면 물릴까 봐, 꼬랑지를 집어 들었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한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네 손을 품안에 넣어라." 손을 넣었습니다. "다시 빼 보라." 해서 빼니까 금방 손이 헐어서 문둥병이 된 겁니다. "다시 넣어라." 해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하고 다시 지시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내라." (삿6:14)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 주시며 나와 함께하실 건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양털을 바깥에 가져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까이하신다면 그 징표로 제가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삿6:37) 그대로 된 것을 보고 기드

온이 믿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해도, 하늘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도 고분 고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찰을 하여라.” 하시고 아무 은사도 내리지 않는다면, 안찰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언약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시고, 또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는 힘이 솟아나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너 이거 해라.” 하여,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하면 이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요21:18) 하나님과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14만 4천이라는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과정에서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평안히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죽게 만드시는가?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려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인을 치시면 다시는 다른 세력이 침투하지 못

합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진 아담,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괜찮아. 먹어!” 이진 마귀의 말입니다. 양자 사이에 싸움의 조건이 없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양자가 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인간들 중에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가 간섭을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방법이 인을 치는 것이라면, 그 인이라는 것은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대게 됩니다. 즉,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암암리에 차곡차곡 해 오시다가 이 역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존재를 지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바람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 베임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그것은 순교자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군병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가느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마10:38)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뭐니까? 호의호식하는 겁니까? 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로마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극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극형은 뭐냐? 교수형입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사형장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다가 안 들어가려고 나무를 붙들고 늘어져서 나무가 반들반들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16:24)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불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해야 합당하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네 임의대로 띠를 띠고 다니나, 때가 되면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다니게 될 것이다.” (요21:18) 하고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미워써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해서 그 이마에 인을 쳐서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듯이, 우리 주님도 신도들을 순교하게 하여 하늘 군병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성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만 번 그 대목을 읽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을 맞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주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념책’(말3:1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계21:27)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단을 이어 받을 때 몇 만 명이든, 몇 천 명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확보하고, 어린 양이 2천 년 동안 범세계적으로 인 맞은 자를 배출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살피서 인을 치신 겁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계14:1)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 받은 주께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권세를 이긴자에게 주겠다 이겁니다.(계3:21)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제 얘기가 진리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많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계20:4)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에

게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 잘 아실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계20: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받았습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생하다가 기꺼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 효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계속해서 그 지독한 고통을 받아 순교하도록 돼 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만인을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성전 휘장이 찢겨지고, 율법이 깨져 버린 겁니다.(눅 23:45)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대신 흘린 보혈의 은혜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군병이 되는 길이 열려야 하는데, 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흘린 보혈의 혜택이 스테반에게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천 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

서운, 성서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주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또 주님이 인을 치신 다음, 그 나머지 수는 누가 인을 치느냐 이겁니다. 인 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주님이 그 권세를 물려주지 않은 사람이 인을 칠 수 있습니까? 이걸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인을 쳐서 내 나라에 들여놓아라.” 하고 당부하셨다면, 그 이마에는 누구의 인이 찍힙니까? 이긴자의 인이 찍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면,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는 겁니다. 재료는 하늘에서 오지만, 일은 이긴자가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의 탄생 말고 예언된 자는 세례요한과 이긴자 감람나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는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계11:3-4) 감람나무에 대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Chapter 18.

교만을 경계하라



우리는 두 감람나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말씀과 체험을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주인공이 현재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슬하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지구 전체가 한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 하여 날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같은 국가 안에서도 좀처럼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안방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크게 발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또 하나의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그 생명

체가 가는 곳을 우리는 영의 세계, 곧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해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영이라는 존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를 깊이 알수록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절로 숙연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말을 해 봤자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다.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만 알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상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애기한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요3:12 참고) 이런 내용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황금 만능시대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돈은 제2의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미국은 이슬람의 테러를 받아 아우성입니다. 이슬람의 특공대에게 찢쩍 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힘이 없는 나라일수록 특수부대가 필요합니다. 일당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특공대가 그랬던 겁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은 영적인 특공대입니다. 이들이 편성되지 않으면 ‘짐승’과 전쟁할 때 짐승을 당해 내지 못

합니다. 이 영적인 특공대가 14만 4천인데, 마귀와의 마지막 결전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하여 이 특공대가 필요한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 특공대원들은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눅17:33) 이 말씀은 요컨대 특공대의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쟁, 전쟁,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만큼 많은 전쟁으로 일관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의 계속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섭리 속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 주신 대로 착실하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개인의 생각을 앞세워 설치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를 내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민20:12)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백성을 모았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지자, 손수 제사를 지내다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삼상13:14)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했더냐?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해서 잘린 겁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강대국이 되니까 목에 힘을 쫘습니다. “내

가 지배하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삼하24:2) 그래서 하나님에게 찍힌 겁니다. ‘내 힘이 이렇게 센데’, ‘내가 이런데’ 이거 하늘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해야지, 자기를 내세워서 안 됩니다. 언제나 약한 가운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곤궁해야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자만심을 가지면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데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없는 데서 지시가 옵니다. 할 수 없는 걸 지시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두 무릎을 꿇고 “시간, 시간,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아마 넉넉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함께 오늘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자세가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29년째 하나님의 역사를 해 오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편안하게 갈비 한 번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쉽니다.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신앙인은 뭘 가졌다는 자랑이 필요 없습니다. 움막을 짓고 살아

도 주님이 같이하시면 행복한 거고, 대궐 같은 데서 살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직과 진실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외관상 아무리 크게 발전하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담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는 당당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자기 나름의 속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주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과 별관 건축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해째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숫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쉬지 않고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 생각하면 꿈같은 얘깁니다.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 역사는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앞선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Chapter 19.

경각심을 잃지 말라(1)



인류의 역사는 종교를 떠나서는, 특히 기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 역사는 기독교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나라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간간히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독특한 인물은 역사를 연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민족성이 강하고 두뇌가 뛰어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활동 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을 싹쓸이하라

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고두고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가 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삿2:21)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군병을 배출시키는 독특한 섭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유대민족들은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시, 다시 말하면 방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큰 저주였습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 유대보다는 로마가 중심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로마에 와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고, 수제자 베드로도 로마에서 처형되어 기독교는 로마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였는데, 나중에 황제가 됐던 콘스

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되어 천주교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황 제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누워 있는 베드로 동상의 발에 사람들이 키스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발이 반들거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었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가 한 인간이며 죽어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주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을 유리방향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두 번 저주를 받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세토록 괴롭힐 것이라는 저주를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삿 2:21)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라를 잃고 유리방향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마24:2 참고)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 경제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즉, 뉴욕의 금융가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윽고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므로,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까지 살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측에서 볼 때 미국은 유대인을 돕는 나라이므로 결국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팔레스타인의 적은 자동적으로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싸워 봤자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을 먼저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이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테러분자들이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변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테러분자들이 미국의 빌딩을 파괴한 것도 유대인을 노린 겁니다. 이 빌딩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의 심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115층 빌딩에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날 세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테러분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어디나 미국인과 유대인이 있는 곳은 편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대가 유대인과 미국인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앞선 역사에 대

해 여러분들에게 간혹 들려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선 역사에서 단을 지키던 교역자나 열심히 믿던 신앙인들이 제2의 감람나무 역사에 대해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뒤에서 다리를 잡아끄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 은혜의 맛을 보았으나 비참하게 죽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그들도 감람나무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박아무개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감람나무 역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라진다 해도, 감람나무 역사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참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박 아무개의 거냐?” 하고 주님이 저에게 채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피를 짓밟아 버린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강대국인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2,300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의 테러 사건으로 7천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진주만 폭격 때는 젊은 군인들만 죽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업가, 은행원, 기술자 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움직임에 따라 신의 손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용히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볼 때 바보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간계는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담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그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과 악령이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은 여러분에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체계가 서서 주의 종을 따를 때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추위를 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제단에 안 나옵니다. “왜 얼굴을 볼 수 없어?”, “죄송해서요.” 환자가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일수록 주의 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

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 두지 않습니다.

알곡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입니까? 14년째 들어갑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노고가 큼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한 톨의 밑알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속에서 싹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고 했습니다.(마13:22)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20.

경각심을 잃지 말라(2)



1) “다른 신을 섬기자 말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류는 기독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이 활동한 광경을 우리에게 소상히 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아닌, 또 다른 신도 활동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서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 내용을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주님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출하신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민족을 싹쓸이하라고 지시하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제가 이미 대

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지구상에 바알 신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을 완전히 멸하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 그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신이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 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째 조목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신이 어떤 신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반공법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반공을 제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으니까, 그 법을 제일 중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출20:3)고 강조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제1조로 법을 세워 경고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주의를 주는 겁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하와에게 적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준다면 하나님은 경계해야 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지으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운운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에 대한 얘기는 먹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잘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해 봤자,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단정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무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리 전해도 상대방에게 이해가 안 갑니다. 즉,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전지전능하지만, 마귀가 도전할 때에는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상대방은 고정관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도 될까 말까 한데, 깨닫질 못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전하여 주지 않고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오.”(롬10:15) 거듭 말하지만, 바울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얘기를 해 봐야 욕만 들이퍼붓고, 툭하면 트집만 잡고, 이러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부터 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만 알고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팔레스타인하고 미국이 싸우는 이면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끼리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바알의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산당도 있어서, 사람들이 바알을 경배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여라.”(행1:8) 사람들이 하나님

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으니 알려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감람나무야 하나님의 아들이 널리 전파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 때 감람나무가 나왔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감람나무 체계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바울의 가르침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 숫자가 많아도 언제나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요컨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감람나무 체계를 심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하고 이름을 밝힌 겁니다.(창17:1)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알은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만 해도 당신의 백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은 알지만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바알을 싹쓸이하려고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주여, 낚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중에 부르는 소리인데, 처음 들으면 어떤 신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니라.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내

가 너와 언약을 맺어야겠다.” 이게 공식적인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여호와라는 신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은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보다 한발 앞서 활동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일반교회가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들도 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소임이 따로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섭리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처럼 신학 공부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영수 말이 옳다고 믿게 되려면 자초지종을 들어서 이해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 얘기가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시간이 촉박하여 영적인 얘기를 조금 하니까 제자들도 금방 부딪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신의 세계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선지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다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긴자에게는 마귀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마귀를 소탕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이긴자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마귀는 마귀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계를 우리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를 사람들은 땅속에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보는 우주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주를 벗어나서, 음부, 곧 어둠의 세계를 지나서 여호와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 두 세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일단 음부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 순교를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순교자의 영은 마귀가 간섭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얼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는가?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겁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바알 신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옛날 에덴동산에서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치는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길렀습니다. 저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을 지었다면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40주야 동안 자세한 작전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죽여 버린 다음에 그들의 신당을 헐고 신상을 부수라는 겁니다.(신14:15-16) 모세가 할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버림을 받고,(민20:12)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삿2:20-21) 이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반대로 알라신을 섬기는 민족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거 작살내겠다,

안 된다, 이것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과거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것뿐입니다. 그 배후 세력은 같습니다. 이것은 신과 신의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새 세계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빛과 어둠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려면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단7:25, 계12:14) 그런데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신으로 변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념해야 하는 것이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이 기간 안에 두 감람나무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죽임을 당한다고 나옵니다.(계11:7) 그러나 사흘 반 후에 소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계11:11) 사흘 반이 됩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나 사흘 반은 같은 기간입니다.

전쟁은 작전상 후퇴하거나 계획을 다시 짜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때를 변경한다고 말합니다.(단7:25) 때를 변경코자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전쟁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한 번의 전쟁이 있고, 다음에 두 번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반밖에 안 되는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치열한 전쟁은 한 때일까요, 두 때일까요, 반 때일까요? 당연히 두 때입니다. 연속적으로 두 번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 한 번 때려서 상대방 전력에 따

라 두 번 연속적으로 때리는데, 잔당이 남아 있을 경우에 반 때 정도 때리면 됩니다.

이것은 흰 돌에 있는 내용입니다.(계2:17)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데, 이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했으니, 아군의 권세가 깨지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상징적으로 표시했습니다.(계11:3)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 인즉.”(계11:7)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기가 들어서 소생됩니다.(계11:11) 며칠 후에 소생되니까? 사흘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 됩니다. 세상 날짜로 3년 반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표시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전쟁은 ‘다른 방법으로 때를 다시 택하여 해야겠구나.’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때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때 도전하는 측에서 상대를 만만하게 봤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때 당황하는 겁니다. 악령 측에서 만만하게 봤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꾸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말씀드리니까 일리가 있다고 들릴 겁니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듣고 계시지만, 2천 년 동안 가려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자가 있

나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 학자들이 쓴 책을 다 훑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터뜨리는 겁니다.

2)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유

성경에 기록된 깊은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의 섭리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귀에 경 읽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마무리 짓는 주의 종으로 이상 중에 가르침을 받고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도 나오지 못한 주제에...’ 하고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은 현실적인 여건을 중요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낯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제 설교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순서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하지만,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처음 들으면 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깊은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는 동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만일 당시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냈더라면 오늘날 미국이 유대인들의 적에게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신끼리 전개하는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 하와, 두 사람을 앞세워 마귀와 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60억의 인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귀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걸 세상이 아느냐? 모릅니다. 대 신학자들도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로만 어렵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만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님들에게 가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영수 너는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해진 겁니다.

이영수와 주님 사이에 오고 가는 교류를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이비다, 하고 돌려 버립니

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후 세계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의 문제를 훌륭한 철학자가 알 겁니까, 신학자가 알 겁니까? 누가 알 겁니까? 깊은 영의 문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걸 들고 나와서 전하니,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영수가 이단 같은데, 설교집을 백 번 읽어 봐도 당할 재간이 없는 고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면 그 이유를 성서적으로 밝히라고 말입니다. 저는 성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영수의 말이 틀렸다면 성서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해석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를 ‘년’으로 환산하여 7년 환란 중의 후반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모르는 소리입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영의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계시를 받고 기록한 다니엘도 모르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이겁니다.(단12:9) 네가 기록하고 뚜껑을 달아 두면 열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뚜껑을 여는 자만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인간들인데, 다른 신을 창조주로 증거하다니,” 하나님은 이걸 도저히 묵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바알 신을 소탕하는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초토화 작전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은 살려줍니다. 한 민족을 송두리째 싹쓸이하라는 여호와와 그의 지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담, 하와를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싸움을 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싸운 겁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신끼리의 전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국가를 점령하고, 제단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을 하지만 그리스도 이후에는 인간의 혼을 놓고 싸웁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사2:3) 그리하여 모든 율법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렘31:33)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악령들이 이 기간에 감행하는 최고로 악랄한 짓이 뭐냐? 거룩한 곳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 전체가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파괴시키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신끼리는 어느 신이 되었든,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는 쪽

은 좋지만, 영광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추석 때나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종이에 써 붙이는 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당사자, 즉 제사를 받는 자의 이름을 써 붙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신에게, 아버지면 아버지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밤 12시에 깨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주문을 읽습니다. “유세차…,” 뭐 어찌고저찌고 몇 마디하고 향을 피운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신이 와서 음식을 편히 먹고 가도록 자리를 피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왜 지내는가?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조상의 신이 노해서 집안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 신을 섬겨, 바알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도저히 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돌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태를 역전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앞세워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민족은 무조건 쓸어버리고, 그들의 신당을 부수고, 신상을 없애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자 의도였습니다.

신은 어떤 신이 됐든,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신끼리 싸운다면 하나님이 바알 신을 섬

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작살내려고 하듯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부터 까버리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습니다. 제사 제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도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는 압니다. 그럼 그 마귀가 그런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갖가지로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참 경건하게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세상을 떠나시면 순교자처럼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신이 썩어 나간다면 이걸 뭐가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역사에 제대로 몸담지도 못하고,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의 시신에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를 바르면 아름답게 모습이 변합니다. 이게 사람의 조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썩게 하고 그 영을 데려갑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런 마귀의 장난을 이영수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안찰을 하여 내 손이 여러분들의 눈에 닿는 순간 악령을 물리치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

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거듭 말하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되, 받는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요14:17)는 주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밝은 세상에 내가 산속에서 사람들을 가둬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29년 동안 드러내 놓고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전에 어떤 배우가 여기 와서 나한테 말합니다.

“총회장님, 저는 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사는데, 대체 같은 성경 해석이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까?”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총회장님은 어떻게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면 그 내용을 본 그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심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하고 연구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겁니다. 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얘기하지만, 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여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들이 다른 겁니다.

내 손길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리는 성령의 은혜는 우주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0.1초도 안 걸려서 오는 것은 죽어 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은

혜의 불감증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압니다. 죽는 순간부터 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역사에 오셔서 단계적으로 배워 나갑니다. 세상은 변해도 신의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안찰로써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소멸되어 가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소멸되어 가는 만큼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감람나무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눅4:6)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이영수라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제 안에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Part 04.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21.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 · 22. 우리는 왜 섭리 안에 거해야 하는가? ·
23. 알곡성전의 소명 · 24. 우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 25.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 26. 성경에 나오는 ‘발등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 27.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하여

Chapter 21.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증거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답을 못할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천 년 동안에 걸친 기독교의 고정관념은 첫째, 하나님은 무조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은 주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 안 되며 하늘 군병이 되어야 한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은 생수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다, 하고 외쳐도 그 사람들은 곧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숫자가 백억이 되어도 마귀는 눈 한 번 깜

뻑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귀를 손볼 수 있습니까? 어렵도 없습니다. 전쟁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전할 때 이기는 거지, 무작정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바알 신을 전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수, 너는 수천 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날 하는 일이 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오늘날 제가 마무리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알려 주신 겁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다.” 하고 말입니다.

일반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일이 척척 다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군병이 어땡고, 영의 전쟁이 어땡고 한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는 겁니다.(계2:7)

노아가 당시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잘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노아야, 배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지시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뭐 설계도가 있길 합니까? 하

하나님이 알려 주신 대로 높이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다, 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종이 퍼졌는데, 약 천 년쯤 지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다 오.”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시험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의도는, 전에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 지구상에 인종이 많이 사는데, 구태여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긴자를 세웠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네 허리에서 열왕들도 생기고, 너의 민족이 내 백성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된다.”(창35:11 참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 내신 겁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천에 옮긴 종이 모세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

래서 모세가 망설임 끝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의도가 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세 시대에 와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연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여건을 조성해 놓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도 잘사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걸 보십시오. “사흘 동안만 간다고 하여라. 급하니 떡도 무교병을 먹게 하여라.” 등등 지시하신 내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처럼 교묘하게 끌어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29년 동안 그걸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저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걸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내가 필요로 하는 군병을

만들어다오.” 이것은 알아듣기가 대단히 힘든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되어 일반교회는 이 말부터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부탁이 있었고, 모세를 택하실 때에도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교회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긴자가 끌여가는 역사가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다른 말을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다 하시는데,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문을 드나들면서 기도하여 복이나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얘기를 해 봐야 먹혀들지 않습니다. 머리에 고정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에게 달라고 조르기만 하고, 하는 일이 잘되면 복 받았다고 하고, 잘못 되면 짓값으로 돌려 버립니다.

이게 교계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제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 봤자 어떻게 씨가 먹히며, 어느 세월에 따를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들 참람된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다오.’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신 겁니다. 나중에 등장한 주의 종이 이만큼이나 해 놓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진노를 푸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Chapter 22.

우리는 왜 십리 안에 거해야 하는가?



1) 그날과 그때

2천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두려워하다가 수많은 억조창생들이 죽어 갔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14:6)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신앙의 형제들도 죽음에 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던 자들은, 예수가 자기를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한마디를 참람된 말이라 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핍박과 조롱을 무릅

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기꺼이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사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면 귀가 번쩍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6:40) 이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2천 년 동안 수억의 기독교 신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해도,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에덴성회 식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사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은 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내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뭘 하고, 주님이 계시면 뭘 합니까? 우리가 살고 봐야 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고 대답했습니다.(마24:36) 기독교 신자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모르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별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이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주께서 알려 주시지 않았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뭘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과 때에 대해 기독교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기독교가 범세계적으로 퍼져, 수십 억, 수백억이 살다가 갔어도, 마지막 날과 때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과 때는 언제냐? 그 답이 영생을 얻는 골자인데, 이걸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생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이 알려 주시기 전에는 마지막 날과 때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영생을 부르짖으면서도, 영생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믿은 겁니다. 그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거 받아서 하나님

의 아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움직였을 때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가 전달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오라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셨겠습니까? 그게 2천 년 전 얘기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을 알았다면 당시에 주께서 이긴자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2천 년 전 사도 요한 당시에 중동 지역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쯤 됐습니다. 그리하여 50여 개 교회 중에 주님이 일곱 교회를 택하여 그 교회들을 통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오기를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에게 이리이러한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2천 년 전에 이긴자가 나왔었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방법은 이긴자의 가르침에 따라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긴자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못사람들이 믿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긴자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신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제가 29년 동안 설교하여 설교집이 14권이나 나오고, 수많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가운데, 단 1분도 성경을 들여다볼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빠 움직이면서도 단에만 썼다 하면 진리를 물 붓듯 쏟아 놓

는 것은, 인간 이영수의 지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마지막 날과 때에 대해 터뜨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로 이긴자가 나와서 터뜨립니다.(계3:21 참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따르고 쉽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으나,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길에 채입니다. 지금은 목자가 양떼를 기르는 시대가 아니라, 양떼들이 참목자를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잘 찾으면 살고, 잘못 찾으면 독초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참꼐를 먹지 못하면, 건강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썩어 가는 시체를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화사하게 변하게 했습니다. 때 묻은 심령을 안찰하여 깨끗이 씻어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느니라. 네가 나서 줘야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다 말고 시계를 보니 한 시 반이었습니다. ‘정말일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무수한 핍박과 조롱 속에, 남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끌어왔습니다. 한 인간을 참된 생명체로 만들어 여호와께 갖다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전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내게 필요한 군병을 만들어, 천국에 들여놓아라.” 하신 겁니다. 그 대신에 재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그 재료가 없습니다. 세상 다 다녀 보십시오.

우리 에덴성회가 다른 사이비 종교처럼, 여러분을 꼬여서 여기 모아 놓은 게 아닙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가평 일대에서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보고자 해도 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지, 나는 조금도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할 일을 해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들이 그 섭리에 오신 겁니다.

2) 성령의 약속

신과 인간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부흥 집회에 은혜가 많다면 그리로 몰려가고, 어느 점쟁이가 옹하다면 그

곳에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도 인간과 교류하기 위해 서로 다룹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놓고 신끼리 서로 싸웁니다.(유1:9 참조)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먹이 하나를 놓고 사자 떼가 여기저기서 달려듭니다. 이때 힘센 수사자가 그 먹이를 차지하면 다른 사자들은 범접을 못하고 기다립니다. 신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강한 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할 때 약한 신은 밀려나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도 인간과 결합하려고 싸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이때 신끼리 표적을 남깁니다.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신이 접했는데, 다른 신이 또 접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는 너희와 교류할 때 이리저리한 느낌을 주겠다.” 하고 미리 알려 줍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나중에도 인간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그 신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신의 증거를 성경에서는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고후5:5)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약속대로 오게 되면, 그 약속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인을 쳤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책임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믿는다고 되

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이 나한테 왔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을 잘못 받으면 그 신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그 섭리 안에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과 승천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그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그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시110:1, 계3:21)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적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뜻을 준행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히2:10) 그것이 주님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요19:30) 그리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시110:4, 히5:9)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적인 인물이 됩니다. 따라서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이 섭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감람나무다 하면 자기 생각대로 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있는 감람나무에 관해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나타난 감람나무를 알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누구다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감람나무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메시아의 경우는 안 그랬습니까? 역대의 제사장들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성서적인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알아보고 믿는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시자 “나이 50도 못된 놈이 허튼 소리만 한다.”고 돌로 치려고 하니가 주님이 몸을 피하셨습니다.(요8:58-59)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깁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감람나무니 이긴자니 하는 말이 성서에 있습니다. 게다가 성서에 빠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두려워서 빠지도 못합니다.(계22:18 참조) 앞선 감람나무를 따랐던 9만의 숫자를 상대하여 여호와께서 필요로 하는 군병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 역사의 기본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주변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람나무 역사를 이루실 적에 당신의 신을 이슬과 같이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호14:5) 만일 이런 언약이 없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렸다면, 그것이 무슨 역사인지 우

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7:38) 이 생수에 대해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요7:39)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 생수가 임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 그전까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여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과 같은 성령은 모세 시대에도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그와 같은 성령의 은총이 내려온 겁니다.(레9:24, 대하 7:1 참조)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신다고 하신 혜택이 아닌 겁니다.

3) 부르심, 빼내심, 진실함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또 진실해야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계17:14, 19:8)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던들, 세마포는 순교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하늘나라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늘나라 제사장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

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옛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을 차지하게 되자 원주민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 시대에 와서 저주가 떨어져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마21:44) 그리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또는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탄생하자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 정착하여 금융가를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를 다시 세운 겁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잃게 된 이슬람 교도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배후 세력인 미국을 상대로 빈 라덴이 이끄는 게릴라전을 전개하여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의 맨해튼을 공격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약 1,500억 개가 있으며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도 수십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은하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많은 은하계를 거느리고 있는 우주 바깥에 있으니, 이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0.1초도 안 걸려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은혜가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은혜가 왔다면 그 은혜는 빛의 속도의 몇 백억 배의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가장 빠르게 여기는 광속도도 영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태양계를 위주로 해서 낮과 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고 알기 쉽게 기록하였지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지고 볶고 하지만, 사실은 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체로 화해지는 순간, ‘아하, 내가 살던 인류의 세계가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영체로 변화된 다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여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거를 받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죽게 된다.” (출33:20)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세마포를 입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고로,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계22:4)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격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를 통해 내 것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주의 일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긴자를 가리켜, “내 아들이 되리라.”(계21:7) 고 말씀하신 것은 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즉 주님과 같은 역할을 지상에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순교자처럼 시체가 부드럽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체가 푹푹 썩어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신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막힌 얘깁니다.

주의 종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은총은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주님의 것을 받으면 주님을 대하는 것이 됩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녀 보십시오. 어디서도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들

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된다.”(요16: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귀한 겁니다. 주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긴자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시는 겁니다.(요15:26) 오늘날 그래서 악령을 물리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앞선 역사에서도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슌14:7)라는 ‘한 날’은 감람나무 시대를 가리키며, 이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을 대대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와 감람나무 시대는 각각 한 세대로 끝납니다.

오늘날 이영수가 제2의 감람나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남북관계와 세계정세가 조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주변 4대 강국의 움직임도 한결 긴밀해 집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도 활발히 전개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김천극장에서 화성에 가는 영화를 본 것이 기억납니다. 영화니까 물론 가상적인 건데, 그것이 이 시대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화성행’이라는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에 무인 우주선이 날아가 내려앉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사진을 전송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으로 달나라에 가는 데 사흘 반 걸렸는데, 화성에 가려

면 8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가는 데만 8개월이니, 갔다 오려면 1년 4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총알이 보통 1초에 1리 가는데, 우주선은 총알보다 빨라서 30리 정도 갑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은 너무 넓으니까 사실상 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달라집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돌아가시면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실제로 영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대충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있으므로, 이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한상걸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평생을 참 외롭게 사셨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 눈을 감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02년을 맞이했는데, 연말에 가서 되돌아볼 때 2002년을 내가 그래도 조금은 영의 세계에 대비하는 생활을 했구

나, 할 수 있도록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됩니까? 차츰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29년째 하나님의 역사를 해 오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또 제가 오늘날까지 그 말씀대로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일을 해 가야 하며, 영의 세계에 가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거기 가서도 할 일이 태산 같구나 등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떠듭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차라리 간단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깨닫기까지, 얼마나 힘들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주의 종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을 모아 건축하고 건설해 나가는데 얼마나 고달픈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hapter 23.

알곡성전의 소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창15:13-16)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430년 동안 백성을 키우시며 이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짧은 시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게 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이유에 대하여는 그동안 아무도 논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내막을 조금은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원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았더

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전2:8 참조)**

옛날 아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마귀이고, 가롯 유다를 통해 예수를 팔아넘기게 한 것도 마귀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조종했던 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류할 필요를 느끼는 새로운 백성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고 그 한 가족 이외의 모든 인간들을 물로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이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가공할 천재지변 앞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달한 시대에 재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가공할 핵무기입니다. 강대국들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핵을 우리의 이웃인 북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공할 무기를 암거래하는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나라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바사제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단정한 것은 터무니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 넓은 세상에 미국을 때려 부순 테러 사건의 배후 인물로 빈 라덴을 지목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하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미국 국민과 열강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테러가 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강경노선을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악령과 싸울 당사자들입니다.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악령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독한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악령에게 승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악령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선 감람나무 역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을 다

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구경만 하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파괴당하면 죽습니다. 살려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죽습니다. 악령은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길러 냈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자 모세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삭막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젓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원망, 불평으로 지내다가 다 죽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삿2:20-21)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감람나무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감람나무 역사에 몸을 담았다고 해도 그 귀중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체계가 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은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려 두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불살라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21:43)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교회에서 이 역사 자체를 깊이 아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사람입니다.(눅4:14)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기독교계의 대표자입니다.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숫자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초대교회에 불과 5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감람나무가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4대 강국이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선 감람나무가 등장한 것은 6.25 직후였습니다. 그는 구들장 밑에서 생수를 연결 받았다고 증거하고, 안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박 씨에 이어 이 씨가 이끄는 감람나무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령과 성령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감람나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역사를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

이 마련된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지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역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잘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참 무던히도 어려운 사정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아내라고 내 심정을 알겠습니까? 저는 신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고,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한도 안에서 하는 거고, 저하고 신과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밝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는 거지, 제가 신과의 교류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납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걸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66권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노아, 모세, 솔로몬 등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알곡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있습니다.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들여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곡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곡식은 심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곡을 거둬 곡간에 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재료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재료로 지상에서 알곡을 만드는 사람은 이긴자입니다. 이긴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따르는 분들이 알곡으로 익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저를 이긴자로 믿고 따를 때 저의 편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하루아침에 저와 원수가 됩니다. 왜 원수가 되는가?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7배나 강한 힘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을 때에도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번개같이 쫓아와서, 택한 자까지도 두루 삼키려고 하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판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잘되면 어둠의 세력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사가 잘되는 걸 멍하니 보고만 있을 마귀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Chapter 24.

우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기독교가 2천 년 동안이나 내려오면서,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을 받아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죄를 씻지 못하는 것은 생수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계3:21)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속4:6)

우리가 찬송을 부를 적에, 한 증거를 받고 감동을 입은 신앙인들이 곡과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스럽지만, 이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대단히 깨끗하고 그 열성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도, 순교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비참

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그들보다 더 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일하고 천 원 받는 것하고, 한 시간 일하고 만 원 받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한 섭리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15:50) 새 생명의 은총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니고데모와 나눈 주님의 말씀입니다.(요 3:3) 그러나 당시의 대학자인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거듭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려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거듭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두 감람나무 중의 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단상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많은 양떼들이 목격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라고만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통고를 받은 후에는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고를 받고 나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 걱정도 많았습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앞선 감람나무와 나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또 그분과의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하고 나는 혼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73년에 주님으로부터 전도사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는 암담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저는 순리대로 되지 않을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걱정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동안 주의 종에 대해 크게 부딪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원장을 위시해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가지 않아 고민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몸소 이것을 겪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문제가 뭐냐? 그것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존재를 몰랐던 겁니다.

앞선 역사에서 곧 주님이 오신다고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손뼉치고 환호했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면 은혜가 오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저마다 깨끗이 살아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신앙 하나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이 신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만만치 않은 신이 또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권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적대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열개가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나 두 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가로막는 그 엄청난 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힘이 도사리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교류에 대해 배웠던 겁

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상상도 못 했고, 기독교계는 지금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우리 역사 뿐입니다. 이긴자는 주님이 당부하고 기다렸던 존재입니다.(계2:7 등) 그가 나타나면 하늘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에게 권세를 주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서 일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계3:21)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주님이 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 2천 년 동안 주님은 각 민족을 상대로 직접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은 그에게 권한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약속대로 앞선 감람나무에게 당신의 권한을 맡겨서 역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그렇게 틀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정대로 주의 종이 제2의 감람나무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누가 됐든, 성경 말씀대로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감람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겁니다. 주님은 29년 전에 이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앞섰던 겁니다.

“네가 따로 해라.”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만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분은 탄 신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게 되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적수가 되어 겨루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왕은 둘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세조, 즉 수양대군이 눈물을 머금고 단종을 죽였습니다. 단종은 조카입니다. 단종이 죽으면 자기가 사는 거고, 단종이 살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둘 중의 하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왜 죽이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둘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종을 죽였습니다.

성서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명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세겜 왕이 되었습니다.^(삿9:56-57) 나머지 형제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 두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해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나안 민족의 몰살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인륜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윤리, 도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그야말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를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수단도 동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나머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수단인들 지시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교회는 마귀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이때 하나님은 만사형통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납니다. 뭐 거기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집안 잘되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됐지, 그 이상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내용을 일반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렸어도, 그 피가 우리와 연결이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결을 시키는 것이 주의 종의 할 일

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내가 누군데’ 하고 어깨에 힘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너를 통해 내 것이 나가느니라.” 하는 주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항상 주의 종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실감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늘에서는 대단히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감사해야 하고, 또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인도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도 없이,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주의 종에게 언제나 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따르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그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 예수는 믿을지 몰라도, 이긴자를 통한 예수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안찰을 통해 그 귀한 주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에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땅재주를 백번 부려도 기성교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기성교회가 뭐, 기도 안 합니까, 철야 안 하고, 금식 안 합니까? 이 시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압만 불러도 이곳에서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못 받는가? 그곳에는 이긴자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사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걸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과 이긴자와의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이긴자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합니다. 가까워지면 삽니다. 이긴자가 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재료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긴자를 놓치면 죽습니다. 뭐 이유야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종도 뭐 신이거나, 이런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화하는 재료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재료가 딱 데는 없습니다.

오늘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체계가 뭐냐? 오늘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아는 것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따라오면서 심적인 갈등도 느꼈을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의문도 갖고, 의심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특이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일반교회와는 다릅니다. 주의 종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나도 어찌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

시피, 내가 위대하기를 합니까, 뭐 특별한 데가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섭리가 그런 걸 난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고 따르는 거지, 제가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겁니다.

이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고심하고, 저런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이런 일로 부딪치고, 저런 일로 휘청거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안찰과 생수의 은총은 앞선 역사로부터 이어집니다. 앞선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체계가 서기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앞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연결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 동참한 식구가 많기를 합니까, 외부에서 도와주기를 합니까? 욕이나 퍼붓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딱 거 없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또 앞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역사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는 사실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는 없

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니 두려울 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지금 참 많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저도 지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Chapter 25.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운동선수를 보면 처음에는 기초부터 다져 가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운 기술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서 우뚝 솟는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초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 터전 위에서 어떻게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난 이제 다 됐다.’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만날 똑같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요구됩

니다.

우리에게는 권태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결혼하여 3년 내지 4년 쯤 되면 부부가 권태기를 맞게 됩니다. 권태가 어디서 오는가? 생활이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잘 보필할 것인가를 명심해야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장단점을 잘 살피서 어떻게 보완시켜 줄 것인가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상부상조가 이루어 집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데서 유대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익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본위로 흘러, 피차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한 지붕 밑에서 한 숟밥을 먹고, 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도, 마음은 멀리 떠나 삭막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걸 당연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권태기는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교역자들이 처음에는 잘해 나가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착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교인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을 등에 업고 목에 힘을 주고, 만 명이 있으면 그 만 명을 등에 업고 어깨에 힘을 주니까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엔 곤잘 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많아져서 떠받들다 보면 본인이 신처럼 되어 버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쥐뿔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신격화시키면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될 수 없는 거고, 신은 신이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신격화는 거짓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종교니까. 그러나 우리만큼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마포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앞선 역사에서 초보적인 감람나무 체계를 배웠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던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두는 역사는 알곡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속에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생명의 은총을 받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 기록한 대로, 부르심을 입고 또 빼내심을 얻고 있습니다. 남은 게 뭐냐? 진실입니다.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우리는 뜻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이건 답답한 겁니다. 체계를 모르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니까. 의심을 하든, 비판을 하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체계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터득하여 스스

로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 앞에 손해를 끼쳐 드리지 않는지,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묻혀 살면서,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혈똥을 사람을 혈똥어 가면서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죄가 됩니다. 남녀가 음란에 빠지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야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신앙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율법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못 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유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득이 가도록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는 아침도 들어 있을 수 있지만, 떨어진 사람의 말은 진실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오해를 샀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 역사가 이렇다’ 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뭐 종알종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듣던 소리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보여야 합

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세워서 안 됩니다. 실력을 갖추어 놓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오늘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조 원가량 됩니다. 기둥, 서까래 할 것 없이 온통 황금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런 성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디를 가나 상대방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선교원장이나 성회장들도 나를 본 받아야 합니다.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청년들은 이제 다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짧은 기간에 아웅다웅해서 뭘 합니까? 알고 보면 후회막심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쟁취해야 할 문제가 뭐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저 자신이 암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만으로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벌려 놓고 이걸 어떡하나, 주의 종도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대를 하시지, 지상의 조건은 어렵지, 성도들은 지치다시피 했지, 참 고민

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거의가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신앙이 몸에 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재산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우리 역사에 돌을 던져도, 여러분들은 끄떡없을 정도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Chapter 26.

성경에 나오는 ‘발등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처럼 정치, 경제, 문화에 깊은 영향을 준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롬7:24) 하였고, 죽기 전에 고난에 동참하려는 뜻에서 곤장 한 대라도 더 맞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게 되신 동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컨대 마귀를 소탕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를 소탕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수의 하늘 군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군병의 수를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며, 그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자신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시16:10)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승천하여, 지금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상에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히10:13)

발등상이 뭘니까? 발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아래 둔다, 발로 깔아뭉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사 66:1) 그러니까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2천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읽고 소개도 하였고, 또 이 시간에도 소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논할 수도 없거니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정지작업을 해야 하는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줬습니다.(창14:19, 히7:7)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히5:11) 그러나 오늘날 주의 종이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결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바울은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다 왔습니다.(고후12:2) 이때 바울의 영이 가는 겁니다. 저도 이상 중에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영적인 얘기를 조금씩 터뜨리지만, 제3자가 들으면 동화 얘기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주를 지나 어둠의 세계가 나타나자 주께서 ‘음부’를 지나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음부가 지구의 땅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설명해 주셔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불러올립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무척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신끼리 볼 때에는 별거 아닙니다. 신끼리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시110:1-4) 하나님은 아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고 하늘에 오르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자 했는가?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를 발등상 시키려면 하나님의 군병 14만 4천의 수가 차야 합니다.(계14:1) 순교자가 하나님의 군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병의 수를 마저 채우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은 지난 2천 년 동안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못 백성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역사해 왔습니다. 그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나오면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계3:21) 보좌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서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은총은 이긴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다 모여서 떠들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발등상 되면 여호와와 통치가 시작됩니다.(고전15:28)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마귀와 일대 접전을 전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이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셔야 합니다.(계19:11-15) 그 군사

를 순교 없이 마저 채우는 작업을 오늘날 이긴자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순교자들에게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계6:11)고 원수 갚는 것을 보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백 번 봐도 무슨 소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실제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여건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범죄한 후로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수 있으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2천 년 동안 역사하였던 겁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병력, 즉 14만 4천의 하늘 군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라 악령과 전쟁할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음부로 끌려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2천 년 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순교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지금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음부로 끌려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

니다.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르는 겁니다.(계6:8)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후 세계를 모르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세마포를 입게 되면, 천사 둘이 와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갑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가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격이 안 된 분들은 두 마리의 마귀가 와서 음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베풀어지려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지성소에 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은 직접 재판을 주관합니다. 왕이 14만 4천이니까, 심판대가 14만 4천 군데로 분산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어도, 꿈같은 얘기라 감히 논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발전한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려보낸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이들이 전도를 하여 2천 년 동안 퍼진 숫자는 백억이 됐든, 천억이 됐든, 그들이 받는 은혜는 오순절 날 불같이 내린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디가든지, 언제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그 성령을 전파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주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세워진 50여 개 교회 중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 그 장 단점을 지적하시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에게 내 보좌를 내어 주고, 그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계2:26, 3:21 참조)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긴자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기독교는 그대로 숫자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에게 맡겨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종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긴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어둠의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계11:6 참조) 주님은 양쪽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는 한쪽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차지하게 되면, 주님이 다스릴 분야가 없어집니다. 앞선 역사의 말로가 그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없는 가운데서 크든 작든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십자가는 있어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섭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것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가는 얘기냐? 이해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곡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유난히 관심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전이야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남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이비 교주의 공론(空論)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자나 깨나 열심히 믿고 전도에 힘쓰던 훌륭한 분들도 세상을 떠나면 썩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 와서 축복을 받으면 시체가 깨끗이 변화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관하는 신이 같습니까? 다르다 그겁니다. 이걸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뭐 누구한테 통사정을 할 겁니까?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따르다가도 의심하고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나 믿고, 교회나 짓고 — 이런다면 이긴자가 뭐 필요합니까? 오늘날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히10:13) 그분이 발등상을 시킨다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분이 직

접 하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그분이 직접 안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님한테 주시고, 주님은 이긴자에게 그 권세를 맡겼다면, 이긴자가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역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수의 하나님의 군병을 채우라고 맡겨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반교회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Chapter 27.

하늘나라의 성전에 대하여



1) 추도예배의 혜택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성전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모든 형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영의 세계의 성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다면, 하늘나라에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겁니다. 다만 영과 육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여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론을 지목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서, 그 후부터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때 아론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 속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했으니,^(히8:5) 첫 언약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있었다면, 하늘나라에도 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파를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즉,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첫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입니다.^(히6:20) 아론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첫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새 언약에 속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첫 언약의 머리에 속하는 제사장이라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아론에게 속한 겁니다. 지상의 성전에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을 세우듯이, 하늘나라의 성전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 이 지상에 성전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지상의 성전과 비슷하지만, 이 성전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무엇을 주관하는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제사장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계14:1, 20:4-6) 즉, 하늘나라에는 정해진 제사장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도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14만 4천 군데의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 그거 참 복잡하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영의 세계에 가시면 눈으로 보니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

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배워서 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언젠가 주의 종이 영의 세계를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상에 앉아 있는지,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황홀감을 느낄 때가 옵니다.” 이 자리에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성전 밖 마당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계11:2) 짐승이 성전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년세계가 끝난 후의 일입니다. 그것이 지상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에 성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가 거기까지 쳐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지성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뿔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단 아래서 이들이 주님께, “원수를 언제 갚을 수 있습니까?”(계67:9) 하고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하늘나라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지적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의 성전이 첫 언약에 의한 성전의 모형이므로, 영의 세계에 가서도 모임을 갖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생활

하다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것은 요컨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의 세계는 죄에서 온전히 씻음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죄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가 뭐 하는 곳이기에 성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런 의문이 일어날 겁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해 주고 정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의 세계에서 제사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죄는 다시 오는 세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성령을 훼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다시는 사함을 못 받느니라.”(마12:32)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죄는 영의 세계에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성령을 훼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오는 세계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다시 오는 세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얘깁니다. 영의 세계에는 죄가 온전히 씻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죄가 온전히 씻긴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추도예배를 드리면, 심판대 앞에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 서방이 예수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추도예배를 드리면 이 제사가 하늘에 상달 됩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용서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범죄를 지었지만, 추도예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사람은 사함을 받으려고 힘쓰지 않았지만, 지상에서 올라간 추도예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하늘의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 하늘의 성전이며,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주관합니다.(계20:6) 이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훼방한 죄는 배제시켜 버립니다. 성령을 훼방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을 훼방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른 죄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훼방한 죄는 사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뜨거운 불의 형벌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성전에 대해 오늘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반열이 무슨 반열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많은 무리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범한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흠과 티가 없게 되려면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2) 하늘나라에서의 예배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던져 주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 읽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가치나 상고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의 하나가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들이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적응하게 되는가?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야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죽으면 천당 간다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천당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병도 고치고, 집안일도 잘되게 하

고, 뭐 별 게 다 있습니다. 무당도 신비로운 일을 많이 하여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도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자상하게 묘사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하늘나라에서 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신으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계14:17) 하늘에 있는 성전과 땅에 있는 성전은 종류가 다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새’자를 붙이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상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니라는 뜻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하늘나라에 왜 성전이 있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조금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천국이라는 빛의 세계와 음부라는 어둠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우주와 마귀가 다스리는 음부를 지나서 있는 세계에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그곳입니다.(고후12:2)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 먼 하늘나라에서 지구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것은 빛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육을 입고 있지만, 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지구에서 취한 겁니다. 성경에 흠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했습니다.(창3:9) 그러나 그 흠의 요소를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흠의 요소를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죽으면 지성소가 아닌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음부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상 중에 제가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에 갈 때, 주께서 저에게 음부를 지나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음부에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인간의 시간관념으로 한 시간 남짓 가는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돌아가셔서 만일 세마포를 입으셨다면, 천사들이 안내를 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도 두세 시간 걸리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빛의 속도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빠른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오늘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0%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천사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이때 그는 음부로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음부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음부로 간 영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의 영은 일단 마귀가 다 음부로 데려갑니다.(계6:8) 이렇게 마귀가 데려가는 것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하여 순교자들을 마귀가 데려가지 못하는 루트가 마련된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테반이 죽은 후, 두 천사들이 안내하여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음부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순교를 내다 보고 하신 예언입니다. 이때 음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 생명체는 음부를 거쳐 가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마귀가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겁니다.

누차 말했지만 그걸 룰(규례)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룰이 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해져 있고, 양자가 모두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뭘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언약은 하늘나라에서 될 일을 하나님이 지시해주신 겁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먼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성전에서

용서받는 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자, 곧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지구상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흉패를 이마에 붙이고 여러 가지 방울을 달고 관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한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자들이 입는 옷을 비유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계19:8, 14) 명칭을 붙이려면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으면, 그 세마포는 육적인 세마포가 아니고, 영적인 세마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서는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은 역조창생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20:12)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계20:6) 하였습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에 백성이 되는 자들은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음부에 있다가 구속을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이 있습니다.(계14:3) 그리고 14만 4천을 제외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와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종류가 다릅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영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60억, 200여 개 국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나라가 14만 4천입니다. 역조창생들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에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나 지옥에 갈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 개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겁니다. 그 수가 몇 백 억도 넘습니다.

그 몇 백 억을 14만 4천 국가로 나눠도 한 국가에 수용된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숫자 중에서 14만 4천의 앞쪽에 기록된 왕일수록 거느리는 숫자가 많고, 제일 끝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적습니다. 14만 4천은 밤낮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지만, 그 밖의 숫자들은 밤낮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

나라는 이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우리 양떼들이 주의 종 밑에서, 잘 믿든 못 믿든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와 안찰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떠난 영들이 음부에 가 있다가, 심판대 앞에 나오면 축복의 혜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어느 왕에게 배당될지 몰라도, 행한 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하늘의 성전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14만 4천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으려면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훼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의 종이 항상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남은 생애를 깨끗이 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뒤에서 정리하는 내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걸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교계에는 사후 세계를 제대로 설명한 종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천 년 동안 읽혀진 성경입니다. 백만 번 읽어 보십시오. 모르는 대목이 많습니다. 마귀를 의식하여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음부에는 구속을 받을 영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 년

동안 잘 믿고 못 믿는 차이는 있어도,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감람나무 역사를 만나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미리 듣고 있습니다.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어쩌다가 이런 섭리를 만난 겁니다.

저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그 감람나무가 되고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 이나마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태초부터 흠과 티가 없는 아담, 하와를 빼앗아간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눅4:6 참조)**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시면 맥을 못 춥니다. 하물며 감람나무라고 해서 맥을 추느냐,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할 때가 되어야 감람나무와 하나님의 종들도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만날 고생만 하는 겁니다. 얻어터지고, 맞아 죽고 합니다. 그 원수를 언제 갚습니까, 하고 주께 물었더니, 주님은 “우리 세계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성경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계2:26)**고 언약한 이유가 그겁니다. 빼앗아서 차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전쟁입니다.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하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마귀는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 측에서만 신사도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깊은 내막을

실제로 이루어 가는 주의 종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나중 감람나무 역사가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그 전략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움직여 나갈 때,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원망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을 얼마나 압니까?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도 깊이 모르는데.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주의 종과 성령이 교류하는 가운데, 차고 나가면서 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떠들고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지도자다 하고 믿었으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주의 종이 다듬어 세워 주지 않으면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3:20 참조)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